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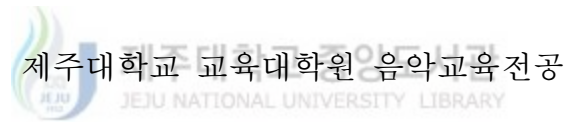
# 전통음악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순 방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일



제출자 윤 경 자

윤경자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 〈국문 초록〉

### 전통음악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윤 경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박순방

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10학년용 음악교과서 8종에서 전통음악 분야 분석과 함께 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음악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음악과 교육활동 영역에서 가창, 감상, 기악, 창작영역 중 가창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전통음악 분야에서는 8종 중 5종이 감상영역의 비율이 높게, 3종은 가창영역이 높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다. 가창영역에서 가창곡은 특정지역의 민요에 편중되어 있다. 기악영역에서도 장구 악기 한 분야에 너무 편중된 점도 시정되어야겠다. 다양한 국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창곡의 종류도 다양해져야 한다. 또한 여러 시대에 걸쳐 문화권의 악곡형식을 이해하며 감상하도록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판사마다 다루고 있는 분야가 미흡하고 감상영역도 듣는 내용으로만 국한되기보다는 보는 것이 병행된 감상 지도 내용이 소개가 되어야겠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창작영역은 가장 중요시 다루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과서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소개조차 되고 있지 않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단위 시수는 줄었는데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가창, 기악, 감상, 창작과 이해 영역을 골고루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학습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장의 음악교사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전통음악 교육의 성패는 음악과 교육 내용 중에서 전통음악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하느냐는 점과 음악교사들이 확실한 전문이론과 실기를 겸비하여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다양화 시대에 주체성 있는 우리의 전통음악 문화는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하고 폭넓은 제재곡 으로 음악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음악 교과서 저자들은 전통음악 분야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적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악을 전공한 교사가 별로 없어 전통음악 교육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 내지 기능 습득을 위한 별도의 연수가 실시되어야겠고, 이를 위한 교육청에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방송매체를 통한 전통음악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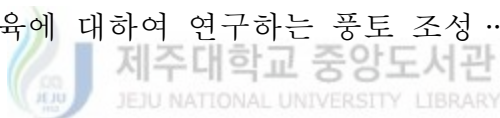
대부분의 매스컴은 대중음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상업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국악프로그램은 새벽 시간 아니면 심야 시간에 편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전통음악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방송시간대도 조정되어야 한다.

전통음악 교육은 우리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게 하며, 정체성과 긍지를 높이는 의미 있는 교육 활동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 자료 .....	3
II. 음악과 교육과정 .....	4
1. 전통음악의 역사적 배경 .....	4
2.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찰 .....	8
1)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고찰 .....	8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변천 .....	8
3)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 .....	18
4) 음악과의 내용 체계 .....	19
5) 음악과 활동영역의 내용 체계 .....	20
III.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 분석 .....	26
1. 전통음악 영역 분석 .....	26
1) 전통음악의 비율(고등학교 8종 교과서) .....	26
2) 가창영역 .....	27
3) 기악 영역 .....	36
4) 감상 영역 .....	40
5) 창작 영역 .....	42
IV. 전통음악 교육의 실태 .....	44
1. 교육과정과 관련된 실태 분석 .....	44

2. 현황과 문제점 .....	45
1) 고등학교에서의 전통음악 교육의 현황과 실태 .....	46
2) 대학에서의 전통음악 관련 교육 현황 .....	56
3.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 .....	63
V. 전통음악 교육의 활성화 방안 .....	66
1. 전통음악 교육 환경조성 및 다양한 음악 교과서 제작 .....	66
2. 음악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적 재정지원 .....	67
3. 방송매체를 통한 전통음악 프로그램 확대 실시 .....	69
1) 국악(라디오·TV)방송프로그램 .....	69
2) 양악음악과 전통음악 프로그램 .....	71
3) 국악방송 (FM 99.1 Mhz)프로그램 .....	74
4. 전통음악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는 풍토 조성 .....	77
VI. 결론 및 제언 .....	79
<참고문헌> .....	8
<Abstract> .....	85



## 〈표 차 례〉

〈표 1〉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8종 음악 교과서 .....	3
〈표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	8
〈표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	15
〈표 4〉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 .....	18
〈표 5〉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 이해 영역 .....	20
〈표 6〉	음악 활동영역의 체계 .....	21
〈표 7〉	음악과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	22
〈표 8〉	고등학교 1학년 8종 음악 교과서 수록 현황 비율 .....	26
〈표 9〉	전통음악의 비율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	27
〈표 10〉	고등학교 8종 교과서 양악·국악 가창곡의 수록 비율 .....	28
〈표 11〉	전통 음악 중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 비교 .....	29
〈표 12〉	제8종 교과서별 가창용 제재곡 현황 .....	31
〈표 13〉	제7차 교과서의 민요 .....	33
〈표 14〉	제7차 민요의 지역별 배분 .....	35
〈표 15〉	제7차 고등학교(10학년)기악활동 체계 .....	37
〈표 16〉	8종 교과서 국악기 취급 현황 .....	38
〈표 17〉	민요 장구장단의 표기 현황 .....	39
〈표 18〉	민요곡에 따른 반주악기에 대한 현황 .....	40
〈표 19〉	제7차 교육과정 국악 관련 감상활동 체계 .....	41
〈표 20〉	국악 창작활동의 내용 체계 .....	43
〈표 21〉	도내 고등학교별 연주단체 운영 현황 .....	49
〈표 22〉	1979년~ 1998년 전통음악 교육관련 논문 .....	51
〈표 23〉	전통음악 교육능력 향상 방안 조사 .....	53

〈표 24〉 전통음악분야를 잘 지도하지 못하는 이유 .....	54
〈표 25〉 대학 재학 시 국악과목 수강 정도 .....	56
〈표 26〉 전국 음악교육학과의 국악 관련과목 선택, 필수 현황 .....	57
〈표 27〉 음악교사의 중요과목순위 .....	58
〈표 28〉 각 대학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이수학점 비교표 .....	60
〈표 29〉 라디오 · TV 국악 프로그램 .....	70
〈표 30〉 KBS 1FM (93.1 Mhz) 프로그램 .....	71
〈표 31〉 MBC 표준FM(95.9 Mhz) 프로그램 .....	72
〈표 32〉 SBS(107.7 Mhz) 프로그램 .....	73
〈표 33〉 국악방송 (FM 99.1 Mhz) 프로그램 .....	74
〈표 34〉 국악방송(FM 99.1 Mhz) 프로그램 내용 .....	75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음악교육은,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국악교육보다도 타문화 중심의 언어에서 생성한 서양음악을 위주로 교육해 왔다. 전통음악은 오랜 역사와 민족의 숨결을 타고 면면히 이어진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거룩한 문화유산이지만, 「음악하면 양악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sup>1)</sup>」라는 지적은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족적 주체성 배양과 세계음악에 대응하는 가치로써 전통음악이 존중되고 지도되어,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어야 하겠음은 사실<sup>2)</sup>」이나, 지금까지 일선 중·고등학교 음악교육은 서양음악에만 치우치고 전통음악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오늘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음악, 미술 등 경시되거나 도외시되고, 또한 학생들은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국내외의 대중가요에 심취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음악교육은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sup>3)</sup>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음악 교과와 학습 내용들을 생활화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음악교육은 학교 이외의 여러 사회분야에서의 교육도 있겠지만 학교교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자료로서 교과서의 비중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전통음악 부분은 공통적인 학습목표를 갖지 못하고 통일성을 이루지 못함으로 해서 피상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

1) 이강숙 (1982), 「음악의 방법」, 민음사, p.227

2) 신경자 (1982),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과 그 원인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1.

3) 이재현 (1986), “중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가창 교육의 실태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p.2.



있다. 특히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전통음악 분야가 그 내용 면에서 간략하고 저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 전통음악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현재 한국음악교육 과정에는 전통음악의 계승이라는 목표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만 전통음악을 가르쳐 줄 음악교사의 자질 향상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음악 지도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초등학교와 대학시절을 거쳐 대부분의 교사들이 서양음악 위주의 교과 과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통음악에 대한 소양과 전통음악을 교육해야겠다는 인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 시설 역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점, 교사 자신이 국악기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는 점, 국악 이론 및 실기에 대한 보완 강습이 일회적, 단기적으로 끝나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통음악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곧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전통음악 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고등학교 전통음악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차 음악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현행 음악 교과서 8종에서 전통음악 부분 중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전통음악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행 전통음악 교육의 실태 분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음악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전통음악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8차 교육과정 개편 시에 음악 교육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 자료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교과서의 실제적인 문제점이 지적되는 현실에서 전통음악과 관련한 내용요소와 음악 활동영역을 분석하여 제7차 교육과정 중에 전통음악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변천과 이를 토대로 바뀐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 나오는 전통음악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내용은 교과서에서 제시된 부분들로만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교육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발표된 논문 중 도내지역과 전국지역 대상으로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방송매체를 통한 전통음악 프로그램 영역을 살펴 전통음악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음악 교과서에서 전통음악에 관한 부분이 8종 교과서에 모두 다루어져 있으나, 전통음악에 관한 내용이 저자와 출판사별로 서로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8종의 음악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8종 음악 교과서

순서	저자명	출판사명	교과서명	검인년월일	발행년월일
1	정영택 외 1명	(주)교학사	고등학교 음악	2001. 11. 22	2002. 8. 24
2	이홍수 외 3명	(주)두산	고등학교 음악	2001. 11. 22	2002. 8. 24
3	백병동 외 4명	(주)천재교육	고등학교 음악	2001. 11. 22	2002. 8. 24
4	윤경미 외 1명	현대음악출판사	고등학교 음악	2001. 7. 26	2002. 3. 01
5	김성수 외 2명	(주)대한교과서	고등학교 음악	2001. 7. 26	2002. 8. 25
6	고춘선 외 1명	세광음악출판사	고등학교 음악	2001. 7. 26	2002. 8. 25
7	서한범 외 3명	도서출판 태성	고등학교 음악	2001. 7. 26	2002. 8. 25
8	이강울 외 3명	박영사	고등학교 음악	2001. 7. 26	2002. 8. 25

## II. 음악과 교육과정

### 1. 전통음악의 역사적 배경

고대 음악(A.D 40)은 삼국지나 후한서의 동의전 등 중국 문헌에 의하면 “부여는 영고(迎鼓), 고구려는 동맹(東盟), 예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각기 하늘에 노래와 춤으로 풍년과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냈고, 마한도 집단적이고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영고, 동맹, 무천 등의 놀이와 다름이 없으며 일종의 굿의 형태를 띠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삼국시대 음악(B.C 37~A.D 935)은 한국의 고대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한민족이 고대에 풍작을 기원하는 제례와 관련하여 음악을 하였고, 기록을 통하여 한민족의 생활속에 음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시기는 삼국시대부터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불교가 전래되고 서역 및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궁, 후, 쟁 등 한나라의 악기가 수입되었다.<sup>5)</sup> 백제는 고구려와 중국과의 교류에 의하여 우수한 음악을 창조했으며, 그 음악은 중국의 남송(南宋)이나 북위(北魏)의 궁정에 일찍 소개되어 6세기에는 일본의 대화조정에 까지 전래시켰고, 특히 7세기 초에 백제의 미마지가 기악무를 일본에 전하였다. 기악무는 우리나라에서 전승되고 있는 양주 별산대 놀이와 봉산 탈춤과 같은 탈춤의 원형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백제 문화의 척도는 가히 짐작된다. 백제의 가악으로는 유명한 정읍사가 있고 악곡만 전해지는 방등산, 무등산, 지리산, 단운산등 5곡이 있다. 국악곡의 정읍사는 가사 없이 기악곡으로 전해지는데, 작자, 연대 미상이다.<sup>6)</sup> 신라는 지리적으로 삼국(三國)중 중국과는 가장 떨어진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

---

4) 장사훈 (1986),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p.19.

5) 서한범 (1986), 「국악통론」, 태림출판사, p.220.

6) 광영효 (1999), 「겨레의 얼 한국전통음악의 맥」, 광명당, p.27.

문에 고유의 음악을 간직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있어서 신라 음악은 가야금, 가(歌), 무(舞) 등 단지 3종류가 있었다. 비록 문화적으로 고구려, 백제보다는 뒤져 있었지만 신라는 이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예술이 일체로 된 통합적인 예술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겠다.

신라의 음악은 악(樂), 가(歌), 무(舞)의 형태로 우륵이 계고에게는 가야고를 배우게 하고, 범지에게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만덕에게는 춤을 각각 가르쳤다.<sup>7)</sup> 가야금은 6세기 이전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쟁(箏)을 본 받아 만든 것으로 내란으로 가야국이 멸망하자 진흥왕 때 우륵이 신라에 전하였다.<sup>8)</sup> 음악기관으로 음성서를 두었는데 이와 같이 별직을 두고 음악을 지도한 것은 신라가 음악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삼국시대 음악의 성격은, 고구려는 웅장하고 호방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백제는 우아하고 섬세하며, 신라는 소박하고 간결한 표현을 가지고 있었으나 반도를 통일 한 후에는 화려하고 섬세한 음악으로 변했다.

고려시대의 음악(918~1392)은 삼국, 특히 신라 강성기의 문화를 계승, 발전 시켰다. 한 민족의 전통음악의 시점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고려에서도 불교를 국교로 삼은 결과 불교문화를 크게 개화시킬 수가 있었다. 특히 유교의 음악인 아악이 조선을 거쳐서 현대에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시의 곡도 몇 곡이 현대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한국음악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초기 음악(1392~1910)은 고려 음악이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태조에서 제9대 성종 때에 크게 발달하였다. 태조는 아악서, 전악서를 설치하여 악제의 정비에 주력하였고 세종 때에는 박연, 맹사성 등에 의한 아악의 부흥이 이루어졌으며 악기가 제작되고 유량악보인 정간보가 창안되어 지금까지 써오던 기보에 정확성이 없는 율자와 육보를 대신한 일은 우리 음악사상 특기할 만한 일이다.<sup>9)</sup> 특히, 조선

---

7) 광영호 (1999), 「겨레의 얼 한국전통음악의 맥」, 광명당, p.32.

8) 함선애 (1992), “고등학교 전통음악 교과과정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p.5.

9) 함선애 (1992), 상계서, p.5.

시대의 음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현이 중심이 되어 편찬된 「악학궤범」(1493, 9대 성종 24년)이 간행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이 집대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 시대를 전후해서 전통음악이 크게 부흥했으며, 「악학궤범」이 지닌 역사적, 음악적 의의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선조 말에 이르러(광무 4년, 1900) 조선왕실에 서양의 군악대가 설치되면서 서양음악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전통음악을 크게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조선 전기의 아악, 향악, 당악, 고취악 등 궁중의 음악이 위축되고 중인과 평민층이 정악과 민속악을 이루어냄으로써 음악에 있어 새롭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발전하게 되었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유교를 국교로 삼아 예악을 존중하여 이를 정치와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았다.

개화기와 일제시대는 서양음악이 유입된 시기로 1886년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등에서 서구식 교육제도가 도입되었고, 1906년 보통학교와 사범학교에서 창가라는 과목으로 음악교육이 처음 실시되었다.<sup>10)</sup> 1900년경 정부에 의해 창설된 서양식 군악대, 전통음악의 보존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양구락부<sup>11)</sup>와 1933년에 창립된 조선성악회는 음악 공연 활동은 물론 후진 양성과 창극 활동에 힘쓰는 등의 사회 일반의 음악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시대부터이다. 이 시대의 음악교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 교육의 암흑기로서 소위 ‘황국 식민화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악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대신에 서양의 민요나 일본의 음악을 교육시키거나 서양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서양음악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 개화기 이후의 서양문화 유입과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정책 등은 우리의 민족음악 발전을 위태롭게 하였고, 서양음악은 전문 음악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영역으로 축소되면서 우리 전통음악은 민중의 품을 떠나 직업소리꾼에 의한 무대물로 변형되어 갔다.

해방 이전의 시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전통 음악문화는 민족정신과 정서가 파괴되어 있었다.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되면서 사

10) 이홍수 (1991),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p.23.

11) 김우현 (1995), 「전통음악의 원리와 교육」, 한국음악교육연구회, p.91.

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음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서양음악 일변도의 발전과 확대로 전통음악의 재건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였고, 미국 군정시대의 교육은 교수요목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은 음악교사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 교과서 역시 없었다. 또한 음악교사들은 서양의 음악에는 조예가 있었으나 국악에는 조예가 없어 국악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미국의 새로운 교육 사조를 받아들이기 이전이어서 실제로는 일제시대의 교육내용을 참작하는데 그치고 말았다.<sup>12)</sup> 이때는 교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음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음악교육에 적극 활용된 것은 해방 후 광복의 기쁨을 노래한 해방가곡과 외국 가곡들이었다. 그나마 교사의 부족과 정치적 혼미가 거듭되면서 계통 있는 음악학습을 하지 못했다.<sup>13)</sup>

전통음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1951년에 국립국악원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1955년에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세워지고, 1959년에 서울대학교의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신설됨으로써 한국음악학의 뿌리를 대학 교육기관에 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1960년대 신세대 젊은 학자의 배출과 활동에 힘입어 성장의 기틀을 굳혀 나갔고, 특히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연주 및 창작 음악학적인 연구와 전통음악의 저변확대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문교부가 공포한 교육과정(1955년)에 따라 음악과가 하나의 교과로 편성되었고,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음악과의 교육과정까지 개편을 거치며 학교 음악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여러 측면에서 변천을 거듭하며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어져가고 있다.<sup>14)</sup>

---

12) 문교부 (1989),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p.23.

13) 유덕희 (1981), 「음악 교수법」, 정음사, p.25

14) 이홍수 (1991),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p.25.

## 2.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찰

### 1)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고찰

음악과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1학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으로 음악수업을 받게 되며, 11-12학년(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음악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은 그 시대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수정·보완·개혁되어 왔으며, 1955년 제1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개정되는데, 그 동안의 교육과정은 <표 2>와 같은 시기와 영역으로 구분되어 개정되었다.

<표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구분 차시	개정 시기	영역 구분
1차	1954~1963년	초등학교-기능연마, 창작, 감상, 음악의 생활화 중·고등학교-기악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이론
2차	1963~1973년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별 지도내용 제시
3차	1973~1981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차	1981~1987년	기본능력(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 표현능력(가창, 기악, 창작), 감상능력
5차	1987~1992년	표현, 감상
6차	1992~1997년	이해(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
7차	1997~	이해(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 활동(가창, 기악, 창작, 감상)

###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변천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개화사상이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기

독교가 들어와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배재학당(1885)과 이화학당(1886)에서 찬송가와 창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개화기 이전에도 물론 광의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내용과 조직에 있어서 현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교육과는 전혀 다른 전수의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을사보호조약(1905)을 전후하여 한국의 교육은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었으며, 식민지 교육의 첫걸음으로 1906년에 공포된 ‘보통 학교령 시행 규칙’ 속에 비로소 ‘창가’라는 과목으로 음악이 교육과정에 삽입되면서부터 단음 창가 중심의 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음악교육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교수요목 시대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될 때마다 그 시대의 사회적·학문적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발전되어 왔다.<sup>15)</sup>

#### (1) 제1차 교육과정 (1955~1963)

제1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44호, 1955년 8월 1일)의 기본 방침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과거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치중하였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하여 학생과 관련이 깊은 일상생활에서 교육 내용을 찾도록 한 점이 두드러진다. 제1차 교육과정은 개념상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교과를 조직함에 있어서는 생활 중심의 단원 학습식 배열, 학습의 생활화 효과와 생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해·기능·태도의 육성에 힘쓴 점, 흥미 중심의 작업 단원의 설정 등 아동 중심적 이상을 반영하려 하였다. 교육과정은 음악의 체험을 통해 정서와 인격을 갖추어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의 교양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음악과 목표의 특징은 일반 목표에 따라 기능 연마 (가창, 기악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이론, 창작 등 다섯 개 항의 목표가 진술되어 있는데, 각 영역의 지도 내용은 음악을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음악에 관한 지식과 음악적 기능, 태도 및 습관 등의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

15) 교육부고시 (2001),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9음악-」,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4.



또한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의 요소를 살펴보면, 민속조로 된 곡을 5곡 이상 사용하고, 외국의 민요와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요를 감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를 보면,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상의 국악적 내용은 극히 저조하며,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음악, 즉 국악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양음악 중심의 음악교육에서 국악의 냄새를 맞보기로 보여준다는 의미의 교육과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뿐으로 국악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한국음악이라는 것은 국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작곡가가 작곡한 서양음악도 한국음악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악교육은 실시한다고 해도 단지 민요 몇 곡을 부르는 것이 국악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다.

## (2)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제2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119호, 1963년 2월 15일)은 문교부에서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 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기초 학력이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교과서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 애국 애족, 우리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 및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첫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음악과 목표의 특징은 <표 3>에 제시한 목표와 더불어 기초적인 표현기능과 창의적 표현 능력, 음악을 즐기는 심성과 감상 능력 및 태도, 독보 능력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 목표가 네 개항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에 따른 학년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 지도 영역이 네 가지의 활동으로 짜여진 것은 경험 중심 교육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내용은 음악에 관한 이해와 활동에 필요한 기능의 연마를 강조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적 내용을 보면,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보다는 약간 상향되어 있으나 가창, 기악, 창작의 표현 능력에 관련된 목표, 감상 능력에 관련된 목표, 그리고 초보적인 기능과 태도에 관련된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아직도 주요 내용 체제를 이루는 것은 서양 음악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국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 (3)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제3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310호, 1973년 2월 14일)은 제2차 교육 과정의 내용면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고, 조직 면에서는 합리성을 보이고, 운영 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등 생활 중심 혹은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에 받아들여지던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크게 비판받고 수정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개정되었다.

3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 일컬어지며, 국민적 교양, 기초적 능력, 표현 및 감상 능력,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및 태도 등 네 항목으로 일반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이 가속화된 것은 1968년 국민교육헌장 선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음악과 교육과정은 기존 학습 내용의 체계화와 전통음악의 소재 선정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 음악성, 창조성, 음악 요소 등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3>에 제시한 목표와 더불어 음악적 감각의 계발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의 다섯 가지 학년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 지도 내용은 학문 중심의 교육 사조의 영향을 받아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음악 행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음악과 교육과정상 국악교육의 내용을 보면, 제2차 교육과정에 비해 비율이 약간 상승한 17%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기에도 국악교육을 실기보다는 감상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국악교육이 활성화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 점차로 우리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독보, 청음, 기보 등의 능력을 길러 모든 음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음악의 기능적인 발달을 도모하였으나 현장에서의 국악교육을 지도하는 음악교사들의 국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의 미비로 실제로 국악교육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 (4)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442호, 1981년 12월 31일)은 1981년에 공포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문교부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교육의 인간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그것은 폭넓은 인간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4차 교육과정을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이라 말하기도 한다. 시대에 따라 단일 사조의 영향을 받아온 종래의 접근과는 달리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되었고,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도록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이었다.

<표 3>에 제시한 교과 목표와 음악적 감각의 계발과 독보 및 청음, 창조적 표현과 음악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과 애호하고 즐기는 태도에 관한 세 개의 목표와 학년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 영역은 기본 능력, 표현 능력, 감상 능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 능력은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으로 세분되어 있고, 표현 능력도 가창, 기악, 창작으로 세분되어 있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의 내용을 보면, 국악교육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음악교육에서 국악교육의 낙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반면, 서양음악교육의 일반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5)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7호, 1987년 3월 31일)은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다. 교과 목표는 제4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같으며, 구성 요소의 감각적 계발과 창조적 표현,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에 관한 두 개항의 목표와 학년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음악과 교육과정은 4차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체제 구성에 있어서 간결성의 묘를 살려서 제시하고 있다. 5차 교육과정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목표와 내용의 구성상의 변화이다.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악교육의 내용을 보면, 가창에서는 민요를 학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기악에서는 국악에서 사용하는 음계로 이루어진 음악을 표현하는 내용과 장구 장단연주, 단소, 사물놀이의 연주방법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감상에서는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비교 감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민요, 농악, 산조, 합주, 판소리 등의 음악을 감상하고, 우리나라 악기의 음색과 그 배합에 따른 음악의 특징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고, 국악적인 5음계를 이용해서 창작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6) 제6차 교육과정 (1992 ~ 1997)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1992년 9월 30일)에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개성이 있고 자율적인 사람, 창의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옹고 그릇을 판단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 등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정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까지의 학년 목표는 없어지고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성격과 내용 체계가 신설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성격은 음악, 음악교육, 학교의 음악교육의 세 가지 관점에서 규명되고 있다. 내용 영역은 음악의 구성 요소에 관한 이해, 가창·기악·창작에 관한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교육의 내용은 국악교육의 발전적인 하나의 획기적인 토대를 쌓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국악적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창에서는 각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살려 민요를 부르고 지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시김새를 살려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 기악에서는 장구를 학습하도록 하고, 단소를 학습하도록 함과 동시에 장단의 종류도 세마치장단, 굿거리장단, 자진모리장단 등 여러 가지 장단의 학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악 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장식음과 꾸밈음도 표현하도록 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창작에서도 국악적인 리듬을 지어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시한 점 또한 중요한 일이다. 감상에서는 판소리, 범패, 연례악, 대취타, 단가, 잡가, 산조 등 전통음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상하도록 하는가 하면, 국악교육을 음악학습의 전 영역에서 다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다른 교육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창작을 강조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전통음악을 학교에서 쉽게 접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론적인 전통음악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창작에서는 우리나라 각 음계를 바탕으로 창작하거나 가사에 의한 가락을 지어여 표현하기,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 등을 교육하게 한 것은 국악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7) 제7차 교육과정 (1977 ~ )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7년)에서는 구성 방침과 음악교육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학생들이 1학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음악 수업을 받게 되며, 11~12학년(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음악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결하여 보다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의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교육 편제는 초등학교 2년을 묶고, 중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묶어서 하나로, 고등학교는 1학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년별 내용은 학년 단위로 나누어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0년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각 영역별 및 학습 요소별로 충분한 학습이 되었는지 교사와 학생이 같이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상의 국악적 내용을 보면, 이해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여러 가지 민요의 음계, 긴·자진형식, 율음형식,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음악적 특징 이해, 연음형식, 산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에 음악형식,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의 성악곡, 연례악을 비롯한 기악곡, 다양한 악기와 연주형태 등을 다루고 있다.

<표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목표	영역	지도·평가	비고
1차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 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애족을 기름에 있다.	가창, 기악, 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 이론, 창작 등 5개영역	지도상의 유의점 없음.	진보주의 영향을 받은 생활 중심교육 과정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함으로서 바람직한 국민으로서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우리나라의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li> <li>·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어 음악을 즐기는 심정과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름으로서 일생 생활을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li> <li>·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며,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과 태도를 길러, 이를 음악과의 모든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별지도 내용 제시	지도상의 유의점 (11개항) 신설	경험 중심 교육 과정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풍부히 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하며,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도록 한다.</li> <li>· 음악적 감각과 기능의 발달을 도모하여, 독보, 청음, 기보 등의 능력을 길러 모든 음악활동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창조적인 표현능력과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길러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와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를 이해시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음악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li> </ul>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지도상의 유의점 (13개항)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구분	목표	영역	지도·평가	비고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li> <li>·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적인 악곡을 스스로 독보하며, 듣고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li> <li>· 악곡을 개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li> <li>·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능력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li> <li>· 표현 능력 (가창, 기악, 창작)</li> <li>· 감상 능력</li> </ul>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은 지도 (5개항)와 평가(2개항)	인간 중심 교육과정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li> <li>· 악곡의 구성요소에 대한 감각을 계발하여, 개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li> <li>· 악곡과 연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기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li> <li>· 감상</li> </ul>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은 지도 (5개항)와 평가 (3개항)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게 한다.</li> <li>· 음악의 기초적인 구성요소와 기본개념을 이해 하게한다.</li> <li>· 창의적인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기르게 한다.</li> <li>· 음악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li> <li>· 표현 (가창, 기악, 창작)</li> <li>· 감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9개항)</li> <li>· 평가 (10개항)</li> </ul>	성격과 내용, 체계 신설

구분	목표	영역	지도·평가	비고
7 차	<p>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li> <li>·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li> <li>·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li> <li>· 활동(가창, 기악, 창작, 감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 학습방법 (5개항)</li> <li>· 수행평가의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내용의 상세화</li> <li>· 학년 군별 (3 ~ 4, 5~6, 7~9, 10학년)로 제시</li> </ul>

<표 3> 에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교과 목표 서두의 ‘음악체험’에 관련된 진술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로 시작되었으나, 제2차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로 바뀌었고, 제3차에서는 다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로 환원되었다. 제4차와 제5차에서는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로 바뀌었다가, 다시 제6차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로 바뀌었다. 제7차에서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로 다시 환원되었다.

내용영역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차는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이후에는 활동 중심으로 전환 또는 통합되었다. 또 2차 이후부터 등장한 창의적인 표현 능력의 목표는 6차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다. 4차 이후에는 음악의 본질적인 이론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창작 내용은 제1차에서부터 계속 제시되고 있다. 5차 교육과정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목표와 내용의 구성화의 변화이다. 이것은 개정된 새 교육 과정이 4차의 교육과정의 성격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체제 구성에 있어서 간결성의 묘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6차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학습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 표현, 감상 등의 학습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음악을 감상하게 하고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으며 악기로 연주하는 등 표현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과 많은 내용에서 연계되어 있지만 일부 내용은 수정·추가되었



다. 성격에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목표에서 음악의 생활화가 추가되었고, 방법에서 합창, 합주가 중심을 이루며 평가에서는 다양한 평가방법과 도구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 전체에 대한 이해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4〉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

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3. 1	1, 2학년			
2001. 3. 1	3, 4학년	1학년(7학년)		
2002. 3. 1	5, 6학년	2학년(8학년)	1학년(10학년)	
2003. 3. 1		3학년(9학년)	2학년(11학년)	선택중심
			3학년(12학년)	

### 3)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선택 과정의 교과목의 내용과 수준은 기존의 음악 교과와 연관 지어 계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음악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악곡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이해를 꾀함으로써 두 영역(이해영역, 활동영역)이 통합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음악 자체를 위주로 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음악교육은 음악 개념의 이해나 기능 습득보다는 ‘음악하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등의 ‘음악하기’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음악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필수 학습요소에 대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

습량을 최적화하여 선정하고 그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와 시대적, 문화적 필요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 4) 음악과의 내용체계

내용체계는 크게 이해 영역과 활동 영역으로 나눈다. 이해 영역은 악곡을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구성하고, 활동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과의 내용은 음악학습에서 꼭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고, 창의성과 음악성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음악을 경험하도록 하고, 내용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 음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이해를 피함으로써 두 영역이(이해 영역, 활동 영역) 통합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음악과 이해 영역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악곡의 구성요소를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해 영역의 내용체계를 정리하면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 민요의 음계, 민요의 형식에 대한 소개는 교학사, 두산, 천재교육, 현대음악, 대한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12울명과 정간보에 대한 소개는 교학사, 두산, 천재교육, 현대음악, 대한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음악사 소개에는 천재교육, 태성, 박영사, 대한교과서, 두산, 교학사에 수록되어 있고,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소개는 8종 모두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시김새에 대하여서는 교학사, 대한교과서, 세광음악, 태성에 수록되어 있다. 전통음악 이해 영역에서 모든 교과서가 골고루 영역별로 수록되어야 하겠다. 이해 영역의 내용체계를 정리하면 <표 5> 와 같다.

〈표 5〉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 이해 영역

		10학년
이해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유형의 박자</li> <li>. 여러 가지 장단</li> <li>. 리듬꼴의 발전과 변화</li> </ul>
	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계에 따른 가락의 구성과 여러 형태</li> <li>. 여러 가지 음계</li> <li>. 민요 음계</li> <li>. 시김새</li> </ul>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부조직</li> <li>. 여러 조의 3화음, 7화음</li> <li>. 화음 진행</li> </ul>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락의 발전과 변화</li> <li>. 다양한 시대, 문화권의 악곡 형식</li> </ul>
	셈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li> </ul>
	빠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li> </ul>
	음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와 음질의 변화</li> <li>. 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소리와 음질의 변화</li> </ul>

### 5) 음악과 활동영역의 내용체계

음악과 활동영역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음악 개념은 학생들이 음악 수업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해서 보여주는 음악 행위를 통하여 학생의 음악적 이해를 관찰하여 파악하게 되므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적 경험은 음악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활동’ 영역은 제6차 교육과정의 표현과 감상영역을 음악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감상활동은 학생이 음악을 집중하여 들으며 음악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활동이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활동의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활동영역의 내용체계는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제시하여 이를 수행하는 행동으로 서술하고 있다. 음악과 활동 영역의 내용 체계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음악 활동영역의 체계

구분		10학년 (고등학교)
활동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풍부한 발성으로 부르기</li> <li>· 듣고 부르기</li> <li>·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어 부르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합창 지휘하기</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부르기</li> <li>·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li> </ul>
	기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li> <li>·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li> <li>·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어 연주하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합주 지휘하기</li> <li>· 여러 유형으로 반주하기</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연주하기</li> <li>·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li> </ul>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의 형식을 이해하여 듣기</li> <li>·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li> <li>·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음질과 그 조화를 이해하기</li> <li>·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li> <li>·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기</li> <li>·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li> <li>· 바른 감상 태도 가지기</li> </ul>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li> <li>· 여러 유형으로 반주하기</li> <li>· 다양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기</li> <li>·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li> <li>·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li> </ul>

〈표 7〉 음악과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구분	제 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비교
		음악	음악과생활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li> <li>· 음악과 교육</li> <li>· 학교 급별에 따른 성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과 교육</li> <li>· 음악과의 성격</li> <li>· 학교 급별에 따른 성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된 일반 선택 과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교과의 특성강조</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성 계발</li> <li>·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함양</li> <li>· 풍부한 정서 함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함양</li> <li>· 음악적 정서 함양</li> <li>① 음악의 구성 요소 이해</li> <li>②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신장</li> <li>③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함양</li> <li>· 음악적 정서의 풍부화</li> <li>① 폭넓은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기르기</li> <li>②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기르기</li> <li>③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간의 음악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능력 중심으로 진술</li> <li>·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균형있게 진술</li> </ul>

구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비교
		음악	음악과 생활	
내용 체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 표현, 감상의 3개 영역</li> <li>· 표현은 가창, 기악, 창작의 3개 영역</li> <li>· 학년별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 활동의 2개 영역</li> <li>· 이해는 7개의 개념</li> <li>·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개 영역</li> <li>· 학년별(3-4,5-6, 7-9, 10학년)로 제시</li> <li>· 필수 학습 내용과 활동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개 영역</li> <li>·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과 활동 선정</li> <li>· 학교 밖 생활과의 연계성 경험</li> <li>· 음악하기에 중점</li> <li>· 10개 학년과 연계성으로 계열적 학습으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 영역의 화음을 화성으로 대치</li> <li>· 2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학년별에 따라 내용을 상세화</li> <li>· 연계성과 통합성을 근거한 내용 선정</li> <li>· 학습 내용별로 내용과 수행하는 행동의 형식으로 진술</li> <li>·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과목의 계약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별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별에 따른 내용 상세화</li> <li>· 학생들이 습득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li> <li>· 필수 음악 요소와 활동 제시</li> <li>· 국악내용의 상세화</li> <li>· 생활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내용제시</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의 음악 개념의 이해와 활동을 바탕으로 한 심화와 생활화</li> <li>·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정신의 구현화</li> <li>· 활동 중심으로 통합화</li> <li>· 실제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 강조</li> <li>· 다양한 음악 활동 중심</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제시</li> </ul>	

구분	제 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비교
		음악	음악과생활	
방법	교수· 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을 근거한 교수·학습 지도계획</li> <li>· 지역의 특성, 학교의 요구, 실정, 학생 발달 수준과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신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수, 학습지도 계획</li> <li>· 지역의 특성, 학생 및 학교의 요구와 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신축성 있는 활용</li> <li>·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의 지도 방법으로 영역별</li> <li>·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방법 제시</li> <li>·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 중심</li> <li>·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연관성, 생활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와 존중</li> <li>· 활동중심, 개인별·그룹별 수업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활동 강조</li> <li>· 전통음악의 지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 별에 따른 방법 제시</li> <li>·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 강조</li> <li>· 학습 방법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의 신축성 있는 활용</li> <li>· 실음 중심의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과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과 이해와 활동 영역 평가 관점 제시</li> <li>· 실음을 통한 평가</li> <li>· 수행평가의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과 생활’의 특성에 맞게 전 영역에서 균형 있는 평가</li> <li>· 이해 영역평가는 통합적 평가</li> <li>· 다양한 평가방법과 도구 활용</li> <li>· 평가의 결과가 학습지도 계획과 지도 방법 개선에 활용</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학습의 평가 관점</li> <li>· 실음을 통한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과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과 이해와 활동 영역 평가 관점 제시</li> <li>· 실음을 통한 평가</li> <li>· 수행평가의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과 생활’의 특성에 맞게 전 영역에서 균형 있는 평가</li> <li>· 이해 영역평가는 통합적 평가</li> <li>· 다양한 평가방법과 도구 활용</li> <li>· 평가의 결과가 학습지도 계획과 지도 방법 개선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에 관한 일반적 지침,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의 활용 제시</li> </ul>

음악과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를 <표 7>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과 교육 배경에서 보아온 것처럼 국악교육의 설자리는 자명해졌으나, 현실은 국악교육이 명목뿐이다. 어느 나라의 음악교육도 자기 것을 충분히 익혀서 외국 음악의 비교 소화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정 반대 입장에 처해 있다. 우리는 우리 고장 우리 조상의 흥겨운 전통의 가락에 쉽게 동화 내지 매료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우리 음악에 대한 지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전통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학교에서도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국악교육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권의 음악적 특질과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국악교육은 단지 과거의 음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전수시켜 주는 교육이 아니다. 음악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음악’도 역시 끊임없이 변하는, 살아있는 음악이다. 한국음악을 단지 ‘전통음악’이라는 범주로 묶어 ‘전통성’만을 강조하고, 창의적 시도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음악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한국음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음악 문화의 창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음악의 전수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창조적 변화와 발전 역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닫혀 있는 한국음악이 아니라 열려 있는 한국음악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해 주는 것은 한국음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악교육이 바로 서야 하겠기에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8종 음악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 Ⅲ.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 분석

#### 1. 전통음악 영역 분석

고등학교 8종 교과서 활동 영역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부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수록 곡 중 가창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상 부분, 기악 부분, 창작 부분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표 8>에서 볼 때 가창 부분이 많이 학습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고등학교 1학년 8종 음악 교과서 부분별 수록 현황

순서	출판사명	가창부분		기악부분		창작부분		감상부분		전체 수록수
		가창	비율 (%)	기악	비율 (%)	창작	비율 (%)	감상	비율 (%)	
1	(주)교학사	50	48	14	14	11	11	28	27	103
2	(주)두산	44	47	9	10	8	9	32	34	93
3	(주)천재교육	31	46	10	15	5	7	22	32	68
4	현대음악출판사	58	56	9	9	10	10	26	25	103
5	(주)대한교과서	59	57	18	18	7	7	19	18	103
6	세광음악출판사	52	45	32	28	12	10	19	17	115
7	도서출판 태성	41	46	12	13	13	15	23	26	89
8	박영사	50	53	6	7	2	2	36	38	94

#### 1) 전통음악의 비율 (고등학교 8종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8종 음악 교과서에 편

재된 전통음악 비율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교과서 분석 시 서양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한국 가곡은 전통음악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새로이 창작되고 있는 창작음악은 포함을 시켰다. 그 비율은 <표 9> 와 같다.

<표 9> 전통음악의 비율(고등학교 1학년(10학년))

교과서 분류	(주) 교학사	(주) 두산	(주) 천재 교육	현대 음악 출판사	(주) 대한 교과서	세광 음악 출판사	도서 출판 대성	박영사
총 페이지 수	175	175	173	173	177	175	178	179
전통음악 페이지 수	38	35	45	48	54	38	50	40
비율(%)	21.71	20.00	26.01	27.75	30.51	21.71	28.09	22.35

각 교과서의 전통음악이 편재되어 있는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출판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20.00%~30.51%까지 비율로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전통음악의 비율은 27.47% 이다.

## 2) 가창 영역

옛날 서당 교육에서도 ‘예악(禮樂)’이라는 것으로 음악교육을 중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886년에 서울에 있는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서 서구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교육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세기가 되었고, 그 당시 서구식 학교교육에서 「창가(唱歌)」라는 과목으로 음악교육이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100여 년 동안 음악 교과서도 창가집, 노래책, 음악 등으로 교과 명칭이 바뀌면서, 교과서의 내용도 많이 변화여 왔다.<sup>16)</sup>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전통음악 지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는 물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 자체가 소홀한데 더구나 전통음악에

16) 김우현 (1995), 「전통음악의 원리와 교육」, 한국음악교육연구회, p.133.

대한 교육이 완전히 도외시되고 서양음악 일변도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과서의 수록 현황부터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여기서 국악이 아닌 전통음악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94년도부터이다. 그 해를 “국악의 해”로 정하고 우리의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범국민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체육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의한 결과, 우리음악을 「전통음악」이라는 용어로 발표했다. 교육부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우리의 음악을 「전통음악」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1) 양악 가창곡과 국악 가창곡의 수록 비율

〈표 10〉 고등학교 8종 교과서 양악 가창곡과 국악 가창곡의 수록 비율

순서	출판사명	양악곡		전통가창곡		전체 가창곡수
		양악곡수	비율 (%)	전통가창곡수	비율 (%)	
1	(주) 교학사	37	74	13	26	50
2	(주) 두산	33	75	11	25	44
3	(주)천재교육	21	68	10	32	31
4	현대음악출판사	37	64	21	36	58
5	(주)대한교과서	42	71	17	29	59
6	세광음악출판사	37	71	15	29	52
7	도서출판 태성	31	76	10	24	41
8	박영사	38	76	12	24	50

국악 가창 부분 수록 비율<sup>17)</sup>을 살펴보면 〈표 11〉 과 같이 국악 곡 중 가창, 기악, 감상, 창작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감상부분이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 세광음악출판사와 (주)대한교과서, 박영사는 가창부분 영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기악, 창작부분 순으로 곡이 수록되어 있다. 〈표 8〉 과 〈표 1

17) 고옥순 (2003),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가창분야 8종 분석”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p.28.

1) 을 다시 비교해 보면 교과서 전체 수록 곡에서는 가창 부분이 훨씬 앞서고 있지만 국악곡에서는 감상을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표 11〉 전통음악 중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 비교

순서	출판사명	가창부분		기악부분		창작부분		감상부분		전체 수록 수
		가창	비율 (%)	기악	비율 (%)	창작	비율 (%)	감상	비율 (%)	
1	(주)교학사	13	30	6	14	3	7	21	49	43
2	(주) 두산	11	34	4	12	1	3	17	51	33
3	(주)천재교육	10	37	5	18	1	4	11	41	27
4	현대음악출판사	21	36	6	11	3	5	28	48	58
5	(주)대한교과서	17	42	11	28	2	5	10	25	40
6	세광음악출판사	15	40	8	21	3	8	12	31	38
7	도서출판 태성	10	40	2	8	0	0	13	52	25
8	박영사	12	52	2	9	0	0	9	39	23

(2) 제7차 국악 가창곡 종류별분포

우리나라에서도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음악교육에서도 서양 음악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점차적으로 우리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국악 가창곡 중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민요 외에도 가곡과 시조, 판소리(창극)와 단가, 창악 노래 등 다양한 곡들이 있는데 〈표 12〉에서 살펴보면 선선편곡, 참고곡, 보충곡, 애창곡 등의 악곡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시조는 교학사, (주)대한교과서, 현대음악출판사에만 수록되어 있고, 가곡은 8종 교과서중 도서출판

태성과 (주)대한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전통성악곡 가운데 모든 교과서가 유독 민요곡으로 치우쳐 교과서를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주)두산 교과서는 가창곡 총 10곡 중 8곡이 민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요는 국악 가창곡들 중에서 학교 교육용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국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악 가창곡의 종류를 넓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시조는 구성음도 적고 형식도 간단하며 기교도 별로 없으며 장고도 필요 없고 손장단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조에서 평시조 한 곡만 익히면 많은 곡을 부를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에 가창곡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가곡은 정악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음악으로서 시조와 함께 가창곡으로 적합하며, 현행 교과서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가곡을 제재곡으로 채택하여 국악 가창곡의 종류를 넓혀야 하겠다.

넷째, 판소리는 일반 대중에 뿌리를 두고 민족과 더불어 자라온 음악이며, 오랜 세월동안 민족 정서로 다듬어지고 길러져서 오늘날에 이른 만큼 문학적, 연극적, 음악적인 면에서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판소리의 가장 두드러진 우수성은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자연스런 흐름이 강조되고 표현되는 음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노래를 통해 충성, 효도, 우애, 신의, 사랑 등의 진솔한 내용을 판소리라는 예술을 통하여 가르치고 함양시켰다. 그러므로 판소리를 통해 해학과 풍자를 즐기면서도 훌륭한 인성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커다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제8종 교과서별 가창용 제재곡 현황

제재곡의 종류 출판사명	민요	시조와 가곡	판소리(창극) 와 단가	창작 노래	기타	계
(주) 교학사	총 8 곡	평시조: “ 동 창 이 밝았느냐”	창극:사랑가 (춘향가)	꽃 분 네 야 (참 고 곡 )	음악극: 사랑가 (한네의승천) 중에서	13
(주) 두산	총8곡 중 (참고곡) 2곡(관련악곡)				낙양춘 (관련악곡) 사모곡	10
(주) 천재 교육	총6곡 중(관련악 곡) 1곡 포함		적성가(춘향가) 단가 : 호남가	가시 버시 사랑	청산별곡	10
현대 음악 출판사	총14곡 중(참고곡) 8곡 서우제소리, 오돌또기(참고곡)	“ 태 산 이 높다하되”	사랑가(춘향가) 화초장(홍보가)	어부 사시사	정악곡 :타령 (현악 영산회 상)	21
(주) 대한 교과서	총13곡 중(참고곡) 2곡 포함	평시조: “ 동 창 이 밝았느냐” 가곡:우조 초수대엽		어디로 갈꺼나	경기잡가 (유산가) 백구사 취타:임금님 의 행차	19
세광 음악 출판사	총12곡 중(참고곡) 3곡포함		사랑가(춘향전) 참고곡		정악곡 :타령 (현악영산회 상중)	14
도서 출판 태성	총8곡 중(참고곡) 1곡 포함	여창가곡 “우락”	범피중류 (심청가)			10
박영사	총11곡 중(참고곡) 3곡 포함		쑥대머리 (춘향가)참고곡	풍년 놀이		13
계	82곡(74%)	5곡(5%)	9곡(8%)	5곡 (5%)	9곡(8%)	110곡

### (3) 가창교육 민요의 개념

‘민요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민요에 대한 개념은 민속학자, 음악학자, 국문학자들이 각각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임동권은 「한국민요」에서 향토성과 그 민족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 그러다가 완성된 것이 민요라고 했다. 또한 일제시대 민요학자인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에서는 「민」과 「요」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다.<sup>18)</sup> 즉 <민>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요, 지배자가 아닌 피지배집단이요, 국가가 아닌 민족의 「민」이 부르는 「요」를, 즉 일종의 연행형태의 노래라고 했다. 「요」는 형식에 지배를 받지 않고 즉흥적으로 읊조리는 소리라고 했다.<sup>19)</sup> 그래서 민요를 정리하면, 민요란 집단적으로 창작하고 집단적으로 널리 불리어지는 생활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되는 연행양식으로 포괄적으로 개념되며, 민요는 우리 민족 특유의 향토음악으로서 여기에는 서민의 소박한 정서가 깃들여 있어 이를 노래함으로써 향토애를 느낄 수 있고 정신적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민요는 지방에 따라 방언(사투리)과 생활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토리라고 한다. 즉 토리라는 말은 그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 방언, 풍습, 기호 등을 이르는 말이다. 한 지역의 민요의 음악적 특징이란 민요를 구성하고 있는 음과 그 음들의 기능, 움직임의 방식, 소리 내는 발성법, 장식음 사용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음악어법을 말한다. 이 토리의 개념은 말로서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 지방 사람들의 음악적 감수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지방의 민요가 그 지방 고유의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음악적 근거가 된다.<sup>20)</sup> 우리나라 민요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기민요, 남도민요, 서도민요, 동부민요, 제주도민요 등으로 분류한다. 즉, 경기민요는 서울, 경기도 지방을 비롯해서 충청도 일부를 포함하며, 남도민요는 전라남·북도를 비롯해서 충청도 일부를 포함하고 서도민요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를 포함한다. 그리고 동부민요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

18) 임동권 (1992), 「한국민요」, 일지사, p.9

19) 고정옥 (1949), 「조선민요연구」, 수전사, p.10-14

20) 김영운 외(1988), 「국악의 향연 3」, 중앙일보사, p.79.

치한 함경도와 강원도, 경상도까지를 포함하는 방법에 따라 지방별로 분류할 수 있다.<sup>21)</sup> 민요는 한 시대, 한 지방 사람들의 인정과 풍습이 담겨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요란 예술 음악의 대칭으로서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소박한 노래이다. 서양음악에는 멜로디, 리듬, 하모니의 3요소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민요는 단순한 가락만이 전해 내려왔다. 이를 학교 수업에서는 가락을 재 편곡한다든지 창작을 하여 민요를 불러 보는 것도 우리 전통음악을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악 가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 과 같다.

<표 13> 제7차 교과서의 민요

곡명	대한	태성	현대	박영사	두산	천재	교학사	세광	중심 악곡	계
강강술래			●	●					2	2
강원도아리랑	●						●	●	3	3
강화시선뱃노래			●						1	1
경북궁타령	●	○			●				2(1)	3
경주꽃노래			○						(1)	1
고성자진아라리			○						(1)	1
곰보타령						○			(1)	1
구아리랑								●	1	1
긴아리랑						●			1	1
나무타령			○						(1)	1
농부가	●				○		●		2(1)	3
등당애타령			○						(1)	1
몽금포타령	○								(1)	1
박연폭포	●	●			●		●	●	5	5

21) 서한범 (1981), 「국악통론」, 태림 출판사, p.144.



곡명	대한	태성	현대	박영사	두산	천재	교학사	세광	중심악 곡	계
방아타령				○					(1)	1
뱃노래		●					●	●	3	3
봄이왔네	●				○				1(1)	2
봉산풍구타령			○						(1)	1
상도사야				●					1	1
상주모심기소리			●				●		2	2
새타령	●	●		●	○			●	4(1)	5
서우제소리			●			●			2	2
수심가		●				●			2	2
신고산타령	●		●	●			●	●	5	5
신천안삼거리								●	1	1
양산도					○				(1)	1
엮음수심가		○				○			(2)	2
영산홍						●			1	1
오돌또기	●	●	○	●	○			●	4(2)	6
옹해야		●							1	1
울산아가씨		●							1	1
육자배기						●			1	1
이야흥타령	○						●		1(1)	2
자진방아타령				●					1	1
정선아라리	●		●		●				3	3
천안삼거리							●		1	1
꽤지나칭칭나네				●					1	1
답돌이								○	(1)	1
풍구소리			●						1	1
한강수타령								●	1	1
해녀가								○	(1)	1
해주아리랑								○	(1)	1
계	9(2)	7(1)	7(6)	7(1)	3(5)	5(2)	8	9(3)		

\* ○ 는 참고곡, 보충곡, 관련악곡의 수이다.

\* ● 는 가창곡으로 악보화 되어 있는 곡이다.

위의 <표 13> 에서 보는 것과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 현대출판사가 15곡으로 가장 많은 곡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천재는 7곡으로 가장 적었다.

#### (4) 민요의 악보 제시 형태의 기준

민요의 악보 제시 형태로는 민요의 연주 형태와 관련된 문제로, 민요곡의 선정 방법이 7차 교육과정에서 합창을 통한 제재곡은 한 곡도 없으며 대부분이 제창으로 시김새를 살려 부를 수 있도록 편곡된 단선율의 민요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비화성적인 단선율의 음악에 시김새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표현법이 가미되어 나타나는 국악의 묘미를 학생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가 지역별로 고르게 수록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표 14> 에서 제시하였다.

<표 14> 제7차 민요의 지역별 배분

출판사 지방	교학사 (주)	두산 (주)	천재 교육 (주)	현대 음악 출판사	대한 교과서 (주)	세광 음악 출판사	도서 출판 태성	박영사	비율 (%)
강원도	1	1	1	1(1)	2	1			10.67
경기도	1	2(2)	1	1(1)	3	3(1)	1	2(1)	25.33
경상도	2			1(2)		1	3	1	13.33
전라도	1	(2)	1	1(1)	2	1	1	2	16.00
제주도	1	(1)	1	1(1)	1(1)	1(1)	1	1	14.67
충청도	1								1.33
함경도	1			1	1	1		1	6.67
황해도			1(1)	1(2)	(1)	(1)	1(1)		12.00
계	8	3(5)	5(1)	7(8)	9(2)	8(3)	7(1)	7(1)	100

제7차 교육과정은 비교적 다양한 민요를 싣고 있다. 하지만 충청도 민요(1.33%)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천재교육에서 콤보타령과 지역명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세광 음악의 신천안 삼거리의 신민요로 지역이 없다. <표 14>에서 한국민요의 지방별 통계를 보면 8도의 민요가 골고루 나타나지 못하고 경기도와 전라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민요가 그 지방의 기후, 풍토나 사람들의 생활풍속과 습관 등에 깊은 관련을 가지는 교육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별 민요의 편중 현상은 우리나라 각 고장별 특유의 가락과 리듬, 그리고 표현법을 통한 맛과 멋을 느낄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고장별로 특징 있는 민요를 고루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각 지방별로 그 지방의 민요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 3) 기악 영역

음악의 기원은 인간의 생명의 영위와 더불어 있다고 볼 때 악기도 인간의 생활과 보조를 맞추며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발달해 온 것이다.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에는 신에게서 악기를 물려받은 이야기, 반전설적인 인물이 악기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악기가 극히 오랜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sup>22)</sup> 우리의 전통 악기도 이미 7세기 이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주면 국가와 교류를 통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수가 65종<sup>23)</sup>으로 늘림과 동시에 많은 음악을 태동시켜 왔다. 또한 오늘에 이르러서는 악기로 음악의 여러 측면을 강조하여 그 석에서 전체적인 음악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기악이란 수제천, 영산회상, 산조등과 같이 궁중과 풍류방 그리고 민간에서 행하여지던 음악이되 인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한국적 악기 소리에 의해 창출되는 우리나라의 전통기악이다.<sup>24)</sup> 또한 인성이 자아내는 소리의 결합으로서의 음악, 즉 성악이 아니고 자연에서 채취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만든 도구나 물질의 진동이나 그 울림에서 우러나오는 인위적 소리발생에 의하여 창출된 음악이라는 뜻을 가졌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국악 관련 기악 활동은 리듬과 가락의 흐름을 이해하여 연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악 음계를 포함한 여러 조에 의한 가락

22) 김형주 (1975), 「음악의 이해」, 문원출판사, p.129

23) 장사훈 (1984), 「한국악기대관」, 세광출판사, p.3

24) 윤명원 외(1988), 「국악의 향연 2」, 중앙일보사, p.9

을 바른 연주법으로 악보에 의하여 연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러 장단을 익히고 악기로 노래를 반주하거나, 창의적인 연주활동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국악의 기악 학습에 있어서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에는 전통음악을 각 영역의 학습 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룬다. 리듬 학습의 소재로서 전통음악의 장단을 활용하는 일, 가창과 기악 학습에서 민요를 소재로 삼는 일, 모든 학습 활동 속에서 전통음악의 소재를 다루고 있다.

(1)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기악활동 내용체계

〈표 15〉 제7차 고등학교(10학년)기악활동 체계

학년	기악활동 내용	특징
10학년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한다.	10학년에서는 국악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되,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한다.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연주한다.	
	악곡의 특징을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한다.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어 부른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한다.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표 15〉 제7차 고등학교(10학년)기악활동 체계를 살펴보면, 바른 자세와 바른 주법을 익혀 연주함은 물론 좋은 음질로 악기를 연주하며, 국악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악곡의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곡을 접하되 다양한 민속악기가 등장하여 국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음악을 연주하려면 정간보 보는 법을 먼저 알아야하고, 악기의 이론 및 주법도 함께 소개 되어야 하며, 그 악기마다의 특징을 살

려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에는 표현을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 교과서마다 수록된 부분이 달라 우리 음악에 덜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렵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우리 음악 중에서도 각 지역의 민요 등 학생들에게 익숙한 곡들을 가락 악기로 연주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곡을 선택하여 연주 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 필요하다.

(2) 8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기 현황

〈표 16〉 8종 교과서 국악기 취급 현황

출판사 지방	교학사 (주)	두산 (주)	천재 교육 (주)	현대음악 출판사	대한 교과서 (주)	세광 음악 출판사	도서 출판 태성	박영사
장구	5	5	4	7	9	8	6	5
가야금		1	1	1			1	
소금			2	1	4			
단소	2	2	1	1	5	3	1	1
대금	0		0		1	0		0
피리		1			1			
북				1				1
사물놀이	1	1	1	1	1	1	1	1
계	8	10	9	12	21	12	9	8

〈표 16〉에서 8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기 현황을 살펴보면 단소, 장구, 사물놀이는 8종 교과서 모두 수록되었으며 대금은 대한 교과서에만 수록되었고, 피리는 두산, 대한교과서에만 수록되고, 북은 현대음악출판사, 박영사에만 수록되었으며, 소금은 천재교육, 현대음악, 대한교과서만 수록되었다. 따라서 교과서에 편중된 악기 수록은 시정해야 될 것이다.

### (3) 교과서별 한국민요 장구장단의 분포

8개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민요의 장단의 종류는 <표 17> 에서 같이 7차 교과서에서는 단모리가 나오지 않으며 휘모리와 육자배기 장단이 등장한다. 대한과 세광 출판사가 가장 고르게 장단을 사용하고 있다. 악곡의 장단은 음악적 시간을 구성하는데 기본적 단위이므로 리듬을 익숙하게 표현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민요의 특징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므로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민요 학습에 있어서는 장단 등을 다양하게 학습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며, 태성 출판사와 천재의 제재곡인 수심가와 영산홍과 긴 아리랑과 참고곡인 엮음 수심가, 교학사의 천안 삼거리의 장단 표기가 나오지 않은 곡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장구 장단이 고르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구의 연주법과 단소의 연주법, 여러 가지 장구 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을 음악에 알맞도록 연주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표현에서는 장식음과 부호를 표현, 사물놀이 등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단모리, 타령, 육자배기, 휘모리 등의 취급이 부족한 교과서가 많은 것은 앞으로 고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17> 민요 장구장단의 표기 현황

출판사 장단	교학사 (주)	두산 (주)	천재 교육 (주)	현대음악 출판사	대한 교과서 (주)	세광 음악 출판사	도서 출판 태성	박영사
세마치		(2)		1	1	1(1)	1	(1)
굿거리	3	1(1)	1	3(3)	2(1)	4(1)	3	3
중모리	2	(2)		2(1)	2	(1)		1
자진모리	1	1		1(1)	1	1		2
중중모리		1		(2)	1(1)	1	1	1
단모리								
자진타령					1			
타령						1		
엇모리	1			(1)	1	1		
육자배기			1					
휘모리			(1)				1	
계	7	3(5)	5(1)	7(8)	9(2)	9(3)	6	7(1)

#### (4) 민요에 따른 전통악기 에 대한 현황

〈표 18〉의 민요곡에 사용된 전통 악기 취급 결과를 살펴보면 8종 교과서에 민요 장단에 장구가 모두 수록되고 있으며, 가야금을 사용한 교과서는 두산, 천재교육, 현대음악 이다. 그리고 단소는 현대음악, 도서출판태성, 박영사를 뺀 나머지 교과서에서 수록되었다. 이렇듯 장구 치기를 제외하고는 악기 연주에 대한 소개가 고루 분포되지 않아 악기 연주에 있어서도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교학사, 대한교과서, 세광음악출판사, 도서출판태성, 박영사 교과서에는 가야금 연주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표 18〉 민요곡에 따른 반주악기에 대한 현황

출판사 지방	교학사 (주)	두산 (주)	천재 교육 (주)	현대음악 출판사	대한 교과서 (주)	세광 음악 출판사	도서 출판 태성	박영사
장구	5	4	4	7	8	8	6	5
가야금		1	1	1				
소금			2					
단소	2	1	1		1	2		

#### 4) 감상 영역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국악 관련 감상활동은 많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음악 수업에서 음악을 듣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을 듣는 것은 감상활동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창, 기악, 창작 활동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가창, 기악활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창작 활동을 할 때에는 자신이 만든 음악을 소리로 바꾸어 들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음악교육은 감상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감상활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국악과 관계되는 감상활동은 국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스스로 음악을

선택하거나 음악회 참여 등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감상활동의 내용에는 긴·자진형식, 시조, 가곡, 가사, 판소리, 단가, 잡가, 가야금산조, 창작국악, 군악, 제례악(종묘제례악), 풍류 연례악(수제천, 여민락, 보허자, 낙양춘), 시나위, 무속음악, 우리나라의 음악 역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악기의 음질과 음색 및 여러 악기들의 조화, 여러 가지 연주 형태, 음악의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한 음악 감상과 학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요, 가곡, 판소리, 단가, 잡가 등의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대취타, 산조, 연례악, 사물놀이에서 창작·국악곡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가곡, 가사, 시조는 천재교육, 현대음악, 박영사에 각각 수록되어 있으며, 수제천은 두산, 대한교과서, 박영사에 수록되어 있고, 판소리는 교학사, 세광, 박영사에 잡가는 박영사, 천재교육, 현대음악, 교학사, 두산에 수록되어 있고, 영산회상은 교학사, 두산, 천재교육, 현대음악, 대한교과서에 수록되었고, 범패는 세광, 천재교육, 현대음악, 대한교과서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교과서마다 골고루 영역별로 수록되어야 하겠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감상활동영역은 더욱 우리 국악과 가까워지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국악 감상활동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표 19> 와 같다.

<표 19> 제7차 교육과정 국악 관련 감상활동 체계

학년	감상활동 내용	특징
10 학년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는다.	10학년에서는 잡가나 창극 등의 성악곡과 기악곡인 창작 국악곡을 감상한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는다.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표현을 한다.	
	다양한 악곡의 연주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	
	잡가, 창극, 창작 국악곡을 듣는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음악을 듣고 평한다.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표 19〉 제7차 교육과정 국악 관련 감상활동 체계에서 보면,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형식을 이해하며 듣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특정 시대나 문화권, 국가의 악곡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 형식으로 확대하여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국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곡의 형식이나 악기의 종류와 음색 등을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감상 학습도 듣는 내용으로만 국한되기보다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병행되는 지도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 5) 창작 영역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 관련 창작 활동은 가장 중요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체계이면서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활동영역이다. 실제로 학교 수업에서 창작 학습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활동영역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적·국악적 창의력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창작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국악과 관계되는 창작활동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락으로 지어 불러 보기와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들며, 만든 곡을 악기로 연주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국악 창작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는 장단의 학습과 음계의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단은 우리나라 음악에서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장단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익숙한가에 따라 만들어 내는 리듬이 얼마만큼 국악적인가에 영향을 준다. 국악 음계에 대한 창작 학습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창작활동에서는 국악의 여러 가지 음계에 의한 가락의 창작과 표현, 가사에 의한 가락의 창작과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장·단조의 가락을 즉흥적으로 지어보기 등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세광 교과서에는 민요에 의한 가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고, 천재교육에서는 전통음악의 가락 짓기가 수록되었으며, 현대음악에서는 민요음계 가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고, 교학사, 두산, 대한교과서, 태성, 박영사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마다 골고루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국악 창작활동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 국악 창작활동의 내용 체계

학년	창작활동 내용	특징
10학년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 한다.	10학년에서는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여 보고 주제를 변주 시켜도 본다.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한다.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	
	5음으로 구성된 전통가락을 만든다.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곡을 만든다.	
	만든곡을 발표한다.	
	만든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표 20〉에서 국악 창작활동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여보고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시켜 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들고, 5음으로 구성된 전통가락을 만들며, 만든 곡을 발표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런 다음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평가는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작품연주를 들으며, 창작의 요소와 연주 등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느낀 점을 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전통가락 짓기를 내용에 넣고 있으며, 주제 변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국악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즉흥 연주에 있어서도 가창, 기악활동의 밀바탕이 되어 연결되며, 작곡을 위해서는 우리 음악만의 특이한 음계, 선법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들을 생략하고서 곧바로 전통가락 짓기를 내용에 설정한 것은 체계 면에서 부족한 것 같다.

## IV. 전통음악 교육의 실태

### 1. 교육과정과 관련된 실태 분석

우리의 전통음악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독특하고 독창적인 자랑스러운 음악 문화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며 전해져 내려왔다. 이러한 국악을 배우고 익히는 작업은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행하여야 할 일이며 공감을 갖고 아끼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통음악 즉, 국악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찾고 민족의 뿌리를 확인하여 위대한 민족의 정기를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는 범국가적 가치를 지닌 일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악과 양악이 공존하는 두개의 음악 문화 속에서 서로의 이질감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 두 음악 문화의 수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 개방의 물결과 함께 서양의 물질문명의 유입, 그리고 문화의 수입에 따른 서구화의 지향성 때문에 자연히 음악 문화도 서양음악 위주로 편향성을 갖게 되었고, 민족의 주권을 회복한 해방 이후에도 우리 전통음악의 제자리 찾기와 그에 근거한 발전과 계발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결과의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국악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 항에서는 우리 음악 즉, 국악의 교육 현실을 고찰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도록 하겠다. 국악교육의 성패는 음악과의 교육 내용 중에서 국악의 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또한 얼마나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느냐 하는 점 등에서 학교에서의 국악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25)</sup>

고등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칠 수 있는 단위 수는 1학년 때 2단위(주당 1시간씩 2학기)의 정규수업 시간이 있고 2학년 때 학생들이 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음악, 미술, 체육 3교과 중 한 과목을 택하여야 하므로 남학교와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주로 체육을 선택하고, 여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 또는 교사수급 등을 고려하여 학교선택으로 체육

25) 국악교육협의회 (1994), 「국악교육협의회보고서 (1)」, 국악원논문집, 제6집, p.216.

을 택한다는 경우가 많으며 음악이나 미술을 택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다.

그 외에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2단위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수급 및 대학입시 최우선인 수요자들의 요구를 의식하여 국악을 선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클럽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국악동아리를 조직·지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지도교사가 대부분 음악교사들이며, 특기·적성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도내 고등학교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국악 관련 동아리는 ‘풍물패’ 활동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클럽활동과도 연계하여 국악교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위와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새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단위 시수는 줄었는데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가창, 기악, 창작, 감상과 이해 영역을 골고루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무엇을 덜어버려야 할지 현장의 음악교사들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업 시수가 줄고 나니 남아도는 교사수도 늘어나 순회교사로, 아니면 부전공 교과(사회, 한문 등) 교사로 가야 할 형편이 되었다.

사기가 저하된 음악교사들이 요즈음처럼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잘 몰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악 단원을 많이 택할 리가 없다. 몇 개 안되는 단원일지라도 교육과정에 포함된 가창, 기악, 창작, 감상과 이해 영역을 골고루 통합하여 알차게 지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악의 완전학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미하긴 하나 특수 분야 직무연수가 일반화되면서 각종 국악연수에 음악교과 이외의 교사들까지도 참석하여 적성에 맞는 전문성을 길러, 풍물반, 탈춤반 등 학교의 국악 동아리들을 지도하고 있음은 꼭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요즈음 전국의 순위고사 출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국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선 대학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2. 현황과 문제점

제 6차 교육과정 이후 우리 음악에 대한 지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

며 전통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학교에서도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국악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권의 음악적 특징과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며, 국악교육은 단지 과거의 음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전수시켜 주는 교육은 아니다. 음악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음악’도 역시 끊임없이 변하는, 살아있는 음악이다. 한국음악을 단지 ‘전통음악’이라는 범주로 묶어 ‘전통성’만을 강조하고, 창의적 시도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음악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한국음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음악 문화의 창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음악의 전수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창조적 변화와 발전 역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혀 있는 한국음악이 아니라 열려 있는 한국음악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해 주는 것은 한국음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악과 교육과정에 전통음악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요, 각 학교에서도 전통음악 교육에 필요한 많은 시설, 악기, 자료 등을 구비하고 교사들이 전통음악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교사들도 전통음악을 더 많이 익혀서 학교 수업에서 전통음악을 원만하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는 음악 교과서에 국악이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악교육에 내용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의 내용’을 결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sup>26)</sup>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에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1) 고등학교에서의 전통음악 교육의 현황과 실태

전통 악기 음색을 듣고 식별하는 능력배양에는 많은 악기가 등장하나 그 악기를

26) 윤미용 (2002),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기악·창작·감상」,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p.4.

실제로 다루어 보지 않아 우리의 음악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전통 악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가지고도 교육의 참된 실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첫째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발표된 ‘고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지도 실태 분석’<sup>27)</sup>과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 연구’<sup>28)</sup>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도내지역 전통음악 지도 실태 분석<sup>29)</sup>

제주도 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음악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악 분야의 이해 영역과 활동 영역의 가창, 기악, 감상, 창작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지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전통음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이 82%가 전통음악 연수를 받은 바 있으며, 그중 기악연수 49%, 전통음악이론 33%, 성악 15%순으로 연수를 받아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며 전통음악과 관련된 연수나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41%가 기악 실기 분야를 희망하였고, 교사들이 이론보다 실기 분야에 대한 재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여 기악 실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민요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악기는 장구가 59%로 가장 많았고, 가창을 지도하는 경우는 민요 창법에 맞게 지도를 하지 못한 어려움을 지적한 교사가 많았다. 전통음악 수업에 있어서 지도하는 악기로는 단소가 6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물 21.9%, 가야금 12.5% 순으로 나타났다.

기악 지도가 되지 않은 이유로는 교사 자신이 기악 연주가 어려워서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사가 71.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학과정이나 국악 연수 시 기악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음악 교사 전원이 전통음악 교육을 위

---

27) 고지수 (2002), “고등학교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지도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1

28) 홍희철 (2000),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 20.

29) 고지수 (2002), 전제서, p.24

한 재교육 차원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악기 구입이 어려워, 수업시간을 활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창작 부분의 교육은 67.6%의 교사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창작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교사가 42%이고, 창작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부족이 32%, 교사 스스로 창작 지도가 어려워서 11%, 교과서 내용이 미흡해서 5%로 나타나 창작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시간 부족으로 인해 창작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창작된 창작곡에 관한 감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75%의 교사들이 창작곡에 대한 감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감상 부분의 교육은 학교에 비치된 감상 자료들로 수업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교사가 57%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지 않다가 25%, 적당하다가 18%로 나타났다. 전통음악 감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자료 구입 어려움이 76%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성을 못 느껴 감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교사는 5%에 불과하였다. 감상 교육을 실시할 때의 문제점이나 견해에서 학생들의 흥미 부족이나, 자료·기회 부족이 많이 지적되었다.

한편 도내 고등학교에 조직된 연주단체나 전통음악 관련 동아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내 전통음악 지도 실태의 일면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21〉 도내 고등학교별 연주단체 운영 현황 30)

지역	고등학교	계열 (국·공·사립)	연주단체 운영형태
제주시 (12개교)	남녕고등학교	일반계(사립)	관악합주단, 사물놀이반
	대기고등학교	일반계(사립)	관악합주단, 사물놀이반
	신성여자고등학교	일반계(사립)	
	오현고등학교	일반계(사립)	관악합주단, 사물놀이반
	제주공업고등학교	실업계(사립)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실업계(공립)	관악합주단, 사물놀이반
	제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일반계(국립)	관악합주단
	제주상업고등학교	실업계(사립)	관악합주단, 사물놀이반
	제주여자고등학교	일반계(사립)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실업계(공립)	관악합주단, 사물놀이반
	제주제일고등학교	일반계(공립)	관악합주단, 사물놀이반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일반계(공립)	관악합주단, 사물놀이반
	남주고등학교	일반계(사립)	사물놀이반
	삼성여자고등학교	일반계(사립)	사물놀이반
	서귀고등학교	일반계(공립)	사물놀이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실업계(공립)	관악합주단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일반계(공립)	사물놀이반
중문상업고등학교	실업계(공립)	가야금합주반, 사물놀이반	
서귀포시 (6개교)	고산상업고등학교	실업계(공립)	사물놀이반
	세화고등학교	일반계(공립)	사물놀이반
	애월상업고등학교	실업계(공립)	가야금합주반, 사물놀이반
	한림고등학교	일반계(공립)	
북제주군 (6개교)	한림공업고등학교	실업계(공립)	관악합주단, 사물놀이반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실업계(공립)	취타대, 사물놀이반
	대정고등학교	일반계(공립)	관악합주단
	대정여자고등학교	일반계(공립)	가야금합주반
남제주군 (4개교)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실업계(공립)	
	표선상업고등학교	실업계(공립)	사물놀이반

30) 고지수 (2002), “고등학교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지도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p.24



〈표 21〉을 보면 28개 고등학교에서 11개교에 관악합주단이 운영되어 제주에 관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통음악 분야는 취타대 1개교, 국악 관현악단 1개교, 가야금반 합주반 3개교, 사물놀이반 19개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전통음악분야는 아직도 조직 면이나 활동이 미흡하며, 현재 도내에 설치된 대학 교육기관에 전통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국악과가 아직도 신설되어 있지 않아 전통음악 연주 활동이 빈약하다는 것도 이 지역 전통음악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재 발표된 ‘전통음악지도 실태 분석’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악교사들은 흔히 국악에 대해 ‘어렵다’라고 말한다. 국악의 연구와 시설도 중요하지만 국악에 대한 교사의 흥미를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청, 정책당국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도내 대학에 국악과가 신설되어 국악실기 지도 과정을 개설하여 국악 실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음악교사들과 교직 과정 이수자 희망자에게 다양한 전통음악 악기를 다루는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며, 초·중·고등학교 국악동아리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권위 있는 국악단체 주최로 전국 또는 시·도교육청, 일반계 초·중·고 대상 국악경연대회를 상설화하여 전통음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하루 속히 도내에 설치된 대학 교육기관에 국악과가 신설되어 확실한 전문이론 지식과 실기를 겸비하여 최상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몫이다. 이것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전통음악 교육은 교사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교사들이 먼저 국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국악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음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또한 교육행정가나 교육관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발표된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연구’<sup>31)</sup> 관련 중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홍희철 (2000),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 20.

(2) 전국지역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 연구

현재 발표된 전통음악 교육관련 논문 중 <표 22> 와 같이 1979년부터 1998년 동안 20년에 걸쳐 발표된 석·박사 학위 논문 중,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22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고, 각 연구자들의 설문조사 대상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현직 음악교사로 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서울,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1979년~1998년 전통음악 교육관련 논문<sup>32)</sup> (교)교육대학원

발표 년도	논문제목	연구자	조사 대상(명)	조사 지역	논문 수여교
1979	“중학교국악교육의 수업모형연구”	강훈의	중.고 (60)	부산 경남	동아대(교)
1983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과 그 원 인 조사 연구”	신경자	중, 고 (100)	서울	이화여대(교)
1984	“중 고등학교에 있어 국악교육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정희철	중, 고 (60)	서울	한양대(교)
	“국악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인식도 조사연구”	임우상	중, 고 (40)	대구 경북	계명대(교)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음악교 육 실태분석”	임세향	중, 고 (72)	서울 인천	숙명여대(교)
1985	“중등학교의 국악교육 실태와 문 제점연구”	이인수	중, 고 (373)	대구 경북	영남대(교)
	“전통음악 교육의 실태와 방송의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	김정수	중, 고 (416)	전국	한양대(교)
1988	“고등학교 국악교육의 개선방안 에 대한 연구”	강인석	고 (100)	서울	단국대(교)
1989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 제점 연구”	최봉애	고 (120)	상주 전지역	영남대(교)


32) 홍희철 (2000), 전계서, p. 21.

발표 년도	논문제목	연구자	조사 대상(명)	조사 지역	논문 수여교
1990	“전통음악 교육의 실태와 관한 연구”	고영란	중, 고(426)	광주 전남	건국대(교)
	“음악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필	중, 고(128)	경남	경남대(교)
	“중등학교 국악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정장선	중, 고(50)	충북	영남대(교)
1993	“현대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남중생	초(100)	대구	영남대(교)
	“국악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용수	중,고 (109)	강원	강원대(교)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와 문제점 연구”	박민희	중 (50)	전남	조선대(교)
1994	“교육대학 음악교육과 교육과정 분석”	서나영	초 (100)	부산	부산대(교)
	“국악교육의 실태연구에 따른 국악감상학습의 제언”	김후분	중 (70)	서울	이화여대(교)
1995	“현행 국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임수연	유치원 (100)	서울	경희대(교)
	“전통음악 교육의 교수-학습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조혜영	중 (150)	광주 전남	전남대(교)
1998	“음악전담교사제 운영이 음악교육에 미치는 효과 연구”	고은실	초 (333)	서울 경기	연세대(교)
	“유치원의 국악교육 실태 조사 연구”	문승조	유치원 (140)	부산	부산대(교)
	“음악교과 전담제 및 국악교육 실태 조사”	배현주	초 (241)	부산	부산대(교)

전국지역 대상의 논문에서 교사의 전통음악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 살펴보면 1984년에 관련 임세향의 논문에서 “국악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교육방법을 몰라서”라고 국악교육의 애로사항을 밝힌 바 있고, 또 국악 수업 중 국악기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55.6%의 응답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신경자, 임우상의 논문과 함께 이미 80년대 이전부터 국악교육이 심각한 정도의 파행적 운영이 거듭되어 왔음

을 볼 수 있다.

1985년에 발표된 김정수의 논문에서 “국악개론 정도는 배웠으나 지도하는 데는 어렵다.”는 응답에 77.8%가 답했고, 1988년 강인석의 논문에서 국악교육이 안 되는 이유로 “국악을 지도하는데 실력이 없고, 자신이 없다”라는 응답에 51%가 답했으며, 기초 국악기 연주법을 가르칠 수 있는 악기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50% 가량의 교사가 “없다”고 응답해, 교사의 국악에 대한 지식이 이론, 실기 양면에서 상당히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음악 교육의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1983년 신경자, 1984년 임우상, 1985년 이인수, 1988년 강인석 등의 논문에 의하면 “국악을 잘 모르고 있고,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에 45%, “서양음악과 비교융합을 통한 더 훌륭한 민족음악을 창출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에 45%,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음악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에 72.1%, “국적 있는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라는 응답에 75%가 답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들의 대부분 국악교육의 당위성을 한국의 것이므로 소중하며, 어릴 때부터 국악을 가르쳐 더욱 세계적인 앞서가는 민족음악을 해야 한다는 민족교육론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23> 전통음악 교육능력 향상 방안 조사<sup>33)</sup>

발표 년도	항목 연구자	음대의 국악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국악연수 실시	음악 교과서의 국악 비중확대	충분한 자료의 공급	전문교사 의 양성	관계 당국의 적극적 지원	수업시간 에 일단 부딪혀 보겠다
1984	임우상	52.5				17.5	30	
1985	이인수	40.2	48	11.8				
1988	강인석	41	17	20	22			
1994	김후분	22.9				10	67.1	
1995	임수연	70	6	6	24			
1998	문승조		54.3					26.4

33) 홍희철 (2000),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36.

〈표 23〉에 의하면 많은 수의 교사가 “음악대학에서의 국악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교사 자신이 현장교육을 통하여 대학 재학 시에 국악교육의 부실함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악연수”를 희망하는 교사가 많음을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국악 능력향상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악 연수 후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짧은 시간에 국악을 배우고 익히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국악연수 교육이 방학 등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연수 이후에는 교사 개인의 노력 이외에는 지속적인 국악 기능의 향상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국악 연수 시수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전통음악분야를 잘 지도하지 못하는 이유<sup>34)</sup> (%)

발표 년도	항목 연구자	교사의 관심·능력 부족	학생이 흥미를 못 느낌	시설 부족	대학 때 국악교육이 미흡	기타
1985	이인수	84.4	58	96		
1988	강인석	51	28	21		
1990	고영란	18.5			68.3	13.2
	정장선	48	32	20		
	이상필	34.25	14.81	40.74		10.18
1994	서나영	45	1		54	
1995	조혜영	48			52	
	임수연	84	15			
1998	고은실	84	2	14		
	문승조	57.9	13.2	28.9		

34) 홍희철 (2000), 전계서, p. 21.

〈표 24〉에서 살펴보면 전통음악을 잘 지도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학에서의 미흡한 국악교육”과 “현직교사의 관심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 1990년에 관련 이상필의 논문에서 “교사로서 국악에 대한 연구를 왜 안 하는가?”라는 질문에 43%가 “연구자료 부족”을 그 이유로 밝혔으며, 1991년에 관련 민미란의 논문에서 “교사의 지식부족으로 국악 수업을 잘 못한다”라는 응답이 73.5%였다. 또한 1993년에 관련 남중생의 논문에서 국악교육을 위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악기 등 시설의 부족과 교사의 실력부족”에 각각 22%, 18%의 교사가 응답했으며, 1998년에 관련 고은실의 논문에서 국악을 지도하지 않는 이유로 “국악실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에 45%가 답했으며, 음악 수업 중 가장 자신 없는 영역에 ‘국악’이라고 답한 수가 47%에 이르는 등, 현장 음악교사의 국악 전반에 걸친 지식수준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1985년에 관련 이인수의 논문에 의하면 구비된 국악기가 수업에 도움을 못 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악기를 다룰 줄 몰라서”라는 응답이 87.8%로 나와 대다수의 교사가 국악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85년에 관련 김정수의 논문에서 연주가능 악기를 묻는 질문에 77.9%가 “한 종류도 연주 못하거나 한 종류 연주 가능”이라고 답했으며 1990년에 관련 이상필의 논문에서 “구비된 국악기가 학습지도에 어느 정도 도움 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이거나 거의 도움 안 된다”가 92% 응답 한 것으로 보아, 일선교사의 국악에 대한 지식이 이론을 비롯하여 실기지도에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5〉 대학 재학 시 국악과목 수강 정도<sup>35)</sup>

(%)

발표 년도	항목 연구자	충분히 받았다	배운 적 없다	국악개론 정도는 배웠으나 지도하기에는 어렵다	미흡하지만 포괄적으로 배웠다	기타
1984	임세향		33.3	44.4		22.2
1985	김정수			77.8		22.2
1990	고영란		17.1	62.7	20	0.2
1993	박용수	2.75		66.97	27.52	2.75
1995	조혜영	13	67	72		20

〈표 25〉의 대학 재학 시 국악과목을 수강 정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응답자가 “국악개론 정도는 배웠으나 지도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응답해 대학에서의 국악 교육이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으며, “충분히 받았다”라고 응답한 수가 극소수임을 볼 때 교사의 현장 국악교육이 대체로 자신 없는 이유를 이 문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학 재학 시 국악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1983년부터 1990년 사이의 논문에서는 “있다”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이 시기가 일부 대학에서 국악학과가 신설되는 등 국악교육자 양성의 움직임이 일부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83년에 발표한 신경자은 그의 논문에서 “음악대학의 국악과목 수강은 필요하다”는 응답에 100% 가 답했으며, 1985년에 발표한 이인수의 논문에서 “음악대학의 국악과목을 필수로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에 92.2%로 나와 많은 대학이 아직도 선택 과목이거나, 혹은, 개설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악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 2) 대학에서의 전통음악 관련 교육 현황

대다수의 음악교사들이 서양음악을 전공하였고, 대학 재학 시에도 국악과목의

35) 홍희철 (2000), 전거서, p. 43.

수강기회가 극히 적어, 결과적으로 국악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 국악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둘째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26> 과 <표 27> , <표 28>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전국 음악교육학과의 국악 관련과목 선택·필수 현황<sup>36)</sup>

대학명	구분	교과명	학점	비고
건국대	선	국악개론 I, II	4	
경남대	선	국악개론 I, II	4	
공주대	필	전통음악 I-IV	4	이론
	선	전통음악 I-VIII	14	실기
목원대		없음		
배재대	선	국악개론	2	
	선	국악사	2	
삼육대	필	국악개론	2	
서원대	필	국악합주 I, IV	12	
	필	국악개론 I	2	
	선	국악개론 II	2	
	선	국악합주 VII-VIII	2	
원광대	필	국악개론 I II	4	
전남대	선	국악개론	2	
	선	전통음악 현악실기 I II	2	
	선	전통음악 관악실기 I II	2	
	선	전통음악 장단법	1	
전북대	필	국악개론 I	3	
	선	국악개론 II	3	
조선대	선	국악개론	3	
	선	국악실기	1	
청주대	선	국악개론	3	
한국교원대	필	국악실기 I-IV	4	
	선	국악개론 I, II	4	
	선	한국음악사 I, II	2	
	선	동양음악사	1	
	선	한국민요론	1	
	선	국악문헌	1	
경상대	선	국악실기 I-IV	6	
	필	국악개론 I, II	4	

36) 한국국악교육학회 (1994), 「국악교육」, 한국국악교육학회, 12집, p.28.



〈표 26〉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국악과목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였고, 제주대학에서도 국악개론 I, 2학점과 국악실기 I, 2학점으로 개설하여 전통음악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과목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현장 국악교육이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며, 서양음악 전공자, 특히 음악교육학을 공부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더욱더 내용 있고 알찬 국악교육을 지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야겠다.

〈표27〉에서 살펴보면 현직 음악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부터 서열을 매긴 결과, 상당수의 교사가 국악실기와 국악이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현장에서 막상 국악을 가르치려고 해도 대학 때의 국악 시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되어 있어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부터 국악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결과라 여겨진다.

〈표 27〉 음악교사의 중요과목 순위<sup>37)</sup>

분류	과목별	비율 (%)	순위
전공실기과목	전공실기	92.5	1
	부전공실기	91.1	2
	제 3실기	87.6	3
공통실기과목	시창 청음	64.6	1
	국악실기	51.1	2
	반주법	38.6	3
	가창법	33.5	4
	건반화성	32.8	5
	지휘법	32.5	6

37) 노장덕 (1994), “중등음악교사의 효율적인 양성방안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50.

분류	과목별	비율 (%)	순위
이론과목	음악통론	78.9	1
	딕션	59.3	2
	캐논 푸가	50.3	3
	현대음악	45.1	4
	화성법	44.0	5
	총보독법	41.5	6
	음계론	34.9	7
	작곡법	24.0	8
	국악개론	22.4	9
	악식론	20.2	10
	대위법	19.7	11
	관현악법	19.5	12
	편곡법	16.6	13
	악기론	15.1	14
	음악분석	15.7	15
음악학	음악사	71.1	1
	종교음악	68.7	2
	오페라사	52.3	3
	국악사	37.5	4
	음악미학	33.5	5
	음악연구특강	32.4	6
	음악감상	27.2	7
	음악문헌	26.3	8
	협주교향곡	26.2	9
	예술개론	25.3	10

따라서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국악전공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조상의 얼과 정서가 배여 있는 한국 전통음악을,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족의 주체성을 가지고 21세기를 힘 있게 이끌 후대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3) 각 대학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이수학점

〈표 28〉 각 대학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이수학점 비교표<sup>38)</sup>

	졸업 이수학점	교양		전공		일반선택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경북대	140	34	24.3	70	50	36	25.7
단국대	140	42	30	52	37.1	46	33
대구예술대	130	46	35.3	50	38.4	34	26.1
부산대	140	42	30	76	54.3	22	15.7
서울대	130	36	28	48	37	46	35.3
영남대	140	31	22.1	70	50	39	28
원광대	140	34	24.3	48	34.2	54	38.6
이화여대	140	21	15	68	48	51	36.4
전남대	140	42	30	80	57.1	18	12.8
전북대	140	36	23.7	36	25.7	68	48.6
전주우석대	140	34	24.3	48	34.3	58	41.4
중앙대	140	42	30	54	38.6	44	31.4
청주대	140	34	24.3	59	42.1	47	33.6
추계예술대	140	6	4.3	134	95.7		
한양대	140	45	32.1	44	31.4	51	36.4
평균율	139	39.5	25.5	61.9	44.5	39.7	29.3

〈표 28〉 을 보면 대학 졸업을 위해 필요한 대학별 총 이수학점은 대구예술대

38) 송혜원 (2000), “국악과의 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p.31.

와 서울대가 130학점이며, 나머지 13개 대학과 제주대는 140학점으로 나뉘어진다. 교과목의 분류는 크게 전공, 교양, 일반 선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양과목은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교양필수, 교양선택, 기초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공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 선택과목은 교직과목과 계열별 선택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대학에 설치된 국악 실기영역의 교과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교과목을 살펴보면, 전공 실기는 제주대, 경북대, 단국대, 전북대를 제외한 12개 대학 모두 전학년에 걸쳐 전공필수 과목으로 수강하고 있다.

각 대학에 설치된 국악 실기영역 중 국악합주를 살펴보면 서울대, 경북대, 대구 예술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주우석대, 청주대, 추계예술대학에서 개설된 과목이며, 과목명이 조금씩 다른 곳도 있다. 부산대는 정악합주로, 경북대는 합주론이라는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원광대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학점은 부여하지 않고, 전북대와 청주대는 전공 선택으로 수강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는 이 연주 수업의 과목명으로 「리사이틀」로, 기악과 성악 전공자는 「리사이틀」을 수강하고, 이론과 작곡은 「세미나」라는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였으며, 한양대는 「연주와 비평」이라는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이 연주 수업은 무대 경험과 더불어 감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과목으로서 연주자가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이다. 그 외에 제주대에서 「국악의 개론과 국악실기」를 개설하여 전통음악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한양대와 전북대에서 「컴퓨터음악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국악과 현대음악의 다양한 만남을 위한 기초 수업임과 동시에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국악관현악 영역에서 전주우석대는 국악관현악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한양대는 전공실습이라는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경북대와 원광대에서는 2학년부터 수강하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 수강하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는 전공선택 과목이며, 단국대는 1학년 필수, 2학년은 선택이다. 전북대와 청주대는 3학년까지는 필수이며, 4학년은 선택이다. 관. 현악합주는 서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우석대, 중앙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대학에서 수강하고 있으며, 국악실내악은 경북대와 청주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에서 수강하고 있다.

타악 실기영역은 각 대학별로 교과목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기 당 1학점에서 2학점까지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 수강하도록 하였고, 타악 실기 교과목의 수업은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장단에 대한 기초를 익힘으로써 연주나 작곡을 할 때 음악을 좀 더 빠르고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다.

성악 실기영역은 15개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한 과목 이상 수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북대의 창극이나 전주 우석대의 합창은 기악전공자들의 국악 관현악이나 국악 합주와 동일 계통의 과목으로, 기악전공자들이 국악 관현악단이나 국악합주를 수강하는 시간에 성악전공자들이 수강하는 과목이며, 전공필수이다. 그리고 국악시창, 청음과 구음연습, 국악가창은 교과목의 명칭은 다르나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국악 이론 및 감상 영역에서 국악이론은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교육시키는 교과목이다. 한국음악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음악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악이론과 국악개론을 저학년이 수강할 수 있게 하였고, 문헌이나 자료의 원전을 통해 학습시키는 국악분석, 국악문헌, 원서강독 등은 고학년(3-4학년)이 수강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고학년으로 진학하면서 국악의 전반적인 이론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음악사는 15개 대학 모두 개설되어 있는 과목으로 국악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국악이론영역에서 볼 때 각 대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단국대, 대구예술대, 부산대, 서울대, 청주대, 추계예술대, 한양대에서는 필수로 개설되어 있고, 부산대는 가장 높은 8학점을 부여하며, 수강해야 한다.

이론세미나는 부산대와 영남대에 개설된 과목으로 합주수업 또는 국악 관현악과 동일계통의 교과목으로 이론전공자들을 위한 대체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실용음악 세미나에서는 기악전공자들의 국악 관현악과 동일계통의 교과목으로 작곡 전공자들을 위한 대체 과목이며, 영남대에 개설되어 있다.

한문강독 과목은 한양대에서만 개설된 과목이며, 국악이론 영역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고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필수 과목이다.

<표 26> 과 <표 28> 에서 살펴본 결과 각 대학별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 대학 국악과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며, 연주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이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미리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에 설치된 대학 교육기관에 국악과가 신설되어 국악교육이 확실한 전문이론 지식과 실기를 겸비하여 최상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 달할 수 있도록 전통음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또한 교육행정가나 교육관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 3.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교육 목적은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써 공포 실시된 교육법 제1호 2조에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여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국민교육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 방침은 “민족의 국제문화를 계승·양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라고 명시해 놓고서도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음악문화 유산을 교육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 음악문화의 발전에 공헌할 수 없게 교육하고 있다.<sup>39)</sup> 민족의 주체성 확립은 그 나라의 민족문화, 민족음악에 대한 애착과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후대에게 바르게 교육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한 나라의 예술은 그 구성체인 민족의 역사적 문화유산임에 틀림없다. 이는 음악 교육에 있어서 전통음악의 교육적 소재를 우리 문화의 전통 속에서 찾으며,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음악교육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전통음악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함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켜야 한다.<sup>40)</sup> 특히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어느 분야보다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음악교육의 소재는 민족의 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적인 자료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여 음악교육 현장에서 전통음

39) 이성천 (1991),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풍남, p.12-13.

40) 유덕희 (1985), 「음악교육학 개론」, 학문사, p.28

악 교육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어온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전통음악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태어나서 5세까지의 아동에게 건전하고 자극이 될 수 있는 발달의 기회를 제공 하겠다”는 국가적인 서약을 발표하여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세기의 작곡가인 독일의 음악교육학자 칼 오르프(Carl Orff)는 이상적인 음악교육은 초기 유년기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하며 원시적인 외침, 발 구르기, 몸 굽히기, 돌기 등 인체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음악적 경험을 시켜야 한다고 초기 유년기의 음악교육을 강조<sup>41)</sup>하고 있다.

음악교사들도 국악교육의 실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부터가 좋다는 반응이 절대적으로 우세한데, 이는 초등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국악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발달 단계와 현장 체험의 결과<sup>42)</sup>가 일치됨을 볼 때 어릴 때부터 전통음악 교육이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서구의 문화가 다양하게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국제간에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다. 그러나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외래문화의 힘에 밀리어 우리의 전통문화는 퇴색되고 있다.<sup>43)</sup>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것이며, 예술성 또한 우수하다. 우리의 문화를 잃으면, 민족정신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를 잃게 된다. 우리 민족이 생존해 가기 위해 민족문화를 잘 지켜야 한다. “서양인이 펴놓은 음악적 명석 위에서 한국 사람이 춤추며 놀고 있는 격이다. 우리가 우리 음악의 주인이 되는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민족문화를 창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을 위하는 일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의 후손이 음악적으로 주인이 되려면 오늘날 한국의 음악적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터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의 기능이 바로 한국특유의 음악어법을 새로이 창조하려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본다.”<sup>44)</sup>

---

41) 서나영 (1994), “교육대학 음악교육과 교육과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교육대학원, p.5.

42) 신경자 (1983),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과 그 원인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p.34.

43) 김우현 (1995), 「전통음악의 원리와 교육」, 한국음악연구회, p.21.

44) 이강숙 (1982), 「음악의 방법」, 민음사, p.99

최근에 와서 사회 전반적으로 민족에 대한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음악계에도 영향을 미쳐 그 동안의 음악 상황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양음악에 밀려 본래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함과 필요성의 이유를 현장의 교사, 학생,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어른들이 먼저 깨달아 국적 있는 음악교육이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되며,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 음악을 아끼고 보존하여 미래의 민족 음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며, 전통문화를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동시에 사명이라 하겠다.





## V. 전통음악 교육의 활성화 방안

### 1. 전통음악 교육 환경조성 및 다양한 음악 교과서 제작

전통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 및 지역사회의 예술 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음악활동의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전통음악의 창조성과 예술적 감각을 성숙, 발전시켜 전통음악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국악수업 중 기악영역에서 교재만 잘 갖추고 있다면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 사물놀이 지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은 소음이 심하여 정규수업이나 클럽활동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학교 내에서는 마땅한 연습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방음장치가 된 음악실을 가진 학교는 극소수일 뿐이며, 멀리 떨어진 건물에 위치하여 소음을 줄이거나 창문과 출입문의 시설을 보완하여 준 방음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학교도 있긴 하나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일반 교실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국악수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악교육이 활성화가 되려면 학교 측이나 교육당국에서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것은 국악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또한, 일반학교 교육은 전인적 성장 위에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음악성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야 한다.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중된 음악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전통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여 국악을 지도하려고 해도 국악을 능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알맞은 교육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대충 지도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제7차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는 국악 내용의 비중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의 활동영역을 보면 가창영역에 너무 큰 비중을 두었고, 국악 제재곡도 민요곡 일변도에서 시조, 판소리, 가곡 등이 추가되어 다양해졌으나 8종 교과서가 이를 각 지역별로 골고루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전라도에 집중되어 있는

데 각 지방별로 그 지방의 민요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제7차 고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서양음악 어법으로 작곡된 서양식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국악을 바탕으로 20세기 초 이후 새로 등장한 신국악을 비롯하여 조상의 얼과 정서가 담겨있는 전통국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2. 음악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적 재정지원

2002년도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해로서 극히 일부학교에서 2·3학년에 선택과목으로 음악교과를 택하고는 있으나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중 국악내용의 비중이 상향 조정되었고, 국악 제재곡도 민요곡 일변도에서 시조, 판소리 가곡 등이 추가되어 다양해졌으며, 음악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고사 출제 시, 국악의 출제 비중이 높아짐은 물론 실기고사 종목에 단소나 장구 등 국악기도 포함하여 직전 교육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였을 뿐 만 아니라 학년(국민공통과정 10학년)의 음악 시수가 제 6차 교육과정의 절반인 2단위로 줄어 국악수업을 포함하여 고등학교의 음악수업 여건이 근본적으로 가장 나빠진 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2단위(주당 1시간씩 2학기)의 정규수업 시간이 있고 2학년 때 학생들이 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음악, 미술, 체육 3교과 중 한 과목을 택하여야 하므로 남학교와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주로 체육을 선택하고, 여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 또는 교사수급 등을 고려하여 학교선택으로 체육을 택한다는 경우가 많으며 음악이나 미술을 택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다. 그 외에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2단위 있는데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수급 및 대학입시 최우선인 수요자들의 요구를 의식하여 국악을 선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클럽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국악동아리를 조직·지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지도교사가 대부분 음악교과 이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통 음악지도는 외래강사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새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단위시수는 줄었는데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가창, 기악, 창작, 감상과 이해 영역을 골고루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학습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장의 음악교사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수업시수가 줄고 나니 남아도는 교사수도 늘어나 순회교사로, 아니면 부전공 교과(사회, 한문) 교사로 가야 할 형편이 되었다. 음악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된 음악교사들이 요즈음처럼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국악 단원을 많이 택할 리가 없다. 음악수업시수가 많아야 전통음악 교육과정에 포함된 가창, 기악, 창작, 감상과 이해 영역을 골고루 통합하여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음악교사의 전문성 확보이다. 국립국악원이나 음악교육 연구단체 등에서는 각종 이벤트와 함께 VTR, CD, ICT자료 등 국악교육 자료도 꾸준히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현직교사의 직무연수에도 국악연수 과정을 개설·운영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 한국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풍부한 정서를 간직한 진정한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상의 얼과 정서가 담겨 있고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교육에 교사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물놀이, 가야금, 민요, 소고춤, 탈춤, 단소 등의 국악교육 관련 특수 분야 직무연수가 주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는 국악연수 기회가 확대가 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에 있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용지도서의 내용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나 임용제도, 일반연수와 자격연수 등의 각종 연수교육에 국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교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전통음악 교육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전국의 순위고사 출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국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선 대학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설치된 대학 교육기관에 전통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국악과가 아직도 신설되어 있지 않아 전통음악 연주 활동이 아주 빈약하다는 것도 이 지역 전

통음악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악과가 신설되어 확실한 전문이론 지식과 실기를 겸비하여 최상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몫이다. 이것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전통음악 교육은 교사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전통음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또한 교육행정가나 교육관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 3. 방송매체를 통한 전통음악 프로그램 확대 실시

우리나라 매스컴의 상업주의적인 방송 위주의 방송편성에 의한 대중음악 중심의 방송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다는 청소년의 프로나 어린이들의 프로를 보면, 대부분이 요란한 조명에 의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소음성의 음악으로 방송되고 있는 프로를 선호하는 현실을 볼 때 국악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친밀감을 갖고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각종 매스컴 매체의 종류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

KBS라디오, MBC 라디오, SBS라디오, BBS 불교방송, CBS 라디오, KBS국제방송, KFM경기방송, PBC, TBS교통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국악방송, 극동방송, KBS 1·2 TV, MBC TV, SBS TV, iTV, EBS TV 등 현재 방송매체에서 전통음악 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며, 전통음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통음악 프로그램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악 (라디오 · TV )방송프로그램

대부분의 매스컴은 대중음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상업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국악 프로그램은 새벽 시간 아니면 심야 시간에 편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전통음악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방송 시간대도 조정되어야 한다. 국악 (라디오 · TV )방송프로그램 을 살펴보면 <표 29> 와 같다.

<표 29> 라디오 · TV 국악 프로그램

방송	시간	진행자	프로그램
KBS1FM	오전 0:00-1:00	송지원, 김해숙,배연형, 조원행	국악의 향연
KBS1FM	매일 오전 1:00~3:00	이상협	음악의 향기
KBS1FM	오전 3:30~4:00	김영화	홍겨운 우리가락
KBS1FM	오전 5:00~6:00	최윤락	동창이 밝았느냐
KBS1FM	매일 오전 11:00~12:00	오정해(국악인)	오정해의 FM 풍류마을
KBS1FM	월~일 오후 5:00~6:00	김영운	홍겨운 한마당
KBS 2FM	.	.	.
MBC FM	오전 5:55~6:00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MBC FM	매주 일요일 오전 5:05~6:00	오정해(국악인)	국악으로여는 아침
MBC FM	매주 목요일 오전 11:00~12:00	이윤재, 김태희	국악 초대석
KBS1 TV	매주 일요일 오후 1:10~2:00	박해선	국악한마당
MBC TV	일요일 오전 8:00~9:00	윤진철, 김미경	新 얼씨구 학당

## 2) 양악음악과 국악음악 프로그램

양악 음악프로그램 시간과 국악음악 프로그램시간 조정이 알맞게 짜여 있는지 살펴보면 <표 30> , <표 31> , <표 32> 와 같다.

<표 30> KBS 1FM (93.1 Mhz)프로그램

시간	KBS 1FM 프로그램
01:00	음악의 향기
05:00	동창이 밝았느냐
06:00	새아침의 클래식
07:00	출발FM과 함께
09:00	이규원의 가정음악
11:00	오정혜의 FM풍류마을
12:00	KBS음악실
14:00	명연주 명음반
15:54	FM신작가곡
16:00	노래의 날개위에
17:00	흥겨운 한마당
18:00	세상의 모든 음악 김미숙입니다
20:00	FM실황음악회
21:00	정다운 가곡
22:00(월~토)	당신의 밤과 음악
22:00(일)	JAZZ수첩
24:00	국악의 향연

〈표 31〉 MBC 표준FM(95.9 Mhz) 프로그램

시간	MBC 표준 FM 프로그램
02:00	박혜진의 모두가 사랑이에요
04:00	최대현의 라디오를 켜고
05:05	건강한 아침 김지은입니다
05:05	국악으로 여는 아침
05:55	한국민요대전(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06:05	남북한마당
06:05	손석희의 시선집중
07:10	뷰티풀 선데이
08:30	라디오 동의보감
08:35	손에 잡히는 경제
09:05	조상희의 생활법률
11:10	변창립의 세상 속으로
11:40	격동 50년
12:00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14:25	지상렬, 노사연의 2시 만세
16:05	전유성,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18:05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10	최영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21:30	이은하의 아이러브스포츠
22:00	옥주현의 별이 빛나는 밤에
24:05	최정원의 감성시대

〈표 32〉 SBS(107.7 Mhz)프로그램

시간	SBS(107.7 Mhz)프로그램
02:00	남궁연의 고릴라디오
03:00	롤리코스터의 Listen up!
04:00	이병희의 사운드 오브뮤직
05:00	김정일의 트로트 하이웨이
06:00	신정원의 모닝 익스프레스
07:00	이숙영의 파워 FM
0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11:00	심해진의 시네타운
12:00	최하정의 파워타임
14:00	이현우의 뮤직라이브
16:00	허수경의 가요풍경
18:00	박소현의 러브게임
20:00	클릭비의 영스트리트
22:00	Fly to the Sky의 1010클럽
24: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KBS 1FM (93.1 Mhz)프로그램과 MBC 표준 FM(95.9 Mhz)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양악프로그램으로 짜여 있고 국악음악 프로그램은 조금 소개가 되고 있다. 그러나 SBS(107.7 Mhz)프로그램에는 양악은 소개가 되었으나 국악은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



### 3) 국악방송 (FM 99.1 Mhz) 프로그램

〈표 33〉 국악방송 (FM 99.1 Mhz)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		진행	
오전	05:07	솔바람 물소리		김재영	
	07:09	창호에 드린 햇살		최유이	
	09:11	풍류산방	일요초대석	송혜진	김자영
	11:12	국악이 좋아요	조순자의 가곡이야기	김성욱	조순자
오후	12:14	우면골 상사디야	김성녀의 우면골 일요마당	김종엽 김영화	김성녀
	14:15	국악은 내 친구	이금희의 음악이 있는 휴일	김봄비	이금희
	15:16	우리마음 우리음악		최영미	
	16:17	이 땅의 오늘 음악, 윤중강입니다		윤중강	
	17:18	오늘 고향은	음악박물관	심상덕	김호성
	18:~19:30	채치성의 우리소리 사랑방		채치성	
	19:30~21	FM 국악당		현경채, 전지영외	
	21:22	최종민의 국악세상		최종민	
	22:23	고운님의 노래		김은하	
	23:24	김용우의 기분 좋은 밤		김용우	
	24:01	한밤의 음악누리		최효민	
01:03	풍류산방(재)	이금희의 음악이 있는 휴일(재)	송혜진	이금희	

〈표 34〉 국악방송(FM 99.1 Mhz) 프로그램 내용

요일	시간	진행	프로그램	내 용
월 ~ 일	05:00 ~ 07:00	김재영	솔바람 물소리	매주 한곡의 명곡을 선정하여 한 주간 반복 청취하여 감상하는 시간
월 ~ 일	07:00 ~ 09:00	최유이	창호에 드린 햇살	다양한 문화정보, 한주간의 공연과 국악으로 꾸민 영화 내용을 전통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
월 ~ 토	09:00 ~ 11:00	송혜진	풍류산방	가곡, 가사, 시조창, 영산회상, 수제천, 여민락, 보허자, 낙양춘등의 국중음악과 종묘와 문묘의 제례의 음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시간
월 ~ 토	11:00 ~ 12:00	김성욱	국악이 좋아요	전통 성악곡을 배우는 전문강습 프로그램으로 경기, 서도, 남도, 민요, 정가, 판소리 등 전통음악풍의 대중적인 노래들을 배우고 함께 불러보는 시간
월 ~ 토	12:00 ~ 14:00	김종엽, 김영화	우면골 상사디아	재치 있는 국악 콩트로 우리 사는 생활상을 풍자하는 국악오락프로그램
월 ~ 토	14:00 ~ 15:00	김봄비	국악은 내 친구	부모와 아이를 위한 시간으로 국악동요와 우리 음악을 통한 태교와 국악교육 프로그램
월 ~ 토	15:00 ~ 16:00	최영미	우리마음우리음악	담담하고 즐거운 우리 음악과 문화이야기

요일	시간	진행	프로그램	내용
월~일	16:00~ 17:00	윤중강	이 땅의 오늘 음악, 윤중강입니다	창작음악을 연대별, 작곡가별, 장르별, 악기별로 구분해 살펴보고며 집중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 프로그램
월~토	17:00~ 18:00	심상덕	오늘 고향은	전통과 현대, 도시와 농어촌을 하나로 잇는 농어촌 소식과 민속음악을 함께 잇는 프로그램
월~토	18:00~ 19:30	채치성	채치성의 우리소리 사랑방	국악예술계의 다양한 공연정보와 전통예술 행사, 명인명창들의 활동등을 전하는 프로그램
월~일	19:30~ 21:00	현경채, 전지영	FM 국악당	다양한 국악공연실황을 해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월~일	21:00~ 22:00	최종민	최종민의 국악세상	전통음악의 장르별 음악을 갈래별로 짧고 쉽게 소개
월~일	22:00~ 23:00	김은하	고운님의 노래	전통음악부터 현대 국악가요와 노래를 편곡한 곡, 반주음악까지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일	23:00~ 24:00	김용우	김용우의 기분 좋은 밤	소리꾼 김용우와 함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월~일	00:00~ 01:00	최효민	한밤의 음악누리	다양한 음악취향과 문화 수용욕구를 가진 음악 매니아를 위한 퓨전음악, 민족음악, 월드뮤직 전문 프로그램
화~일	01:00~ 03:00	송혜진	풍류산방(재)	옛 음악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풍류를 깊이 있게 감상하는 시간

이외에 「일요 초대석」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인물을 초대해 문화의 현 주소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과 「김성녀의 우면골 일요마당」에서 국악인 김성녀의 진행으로 우리 가락과 소리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판소리 한 대목에 숨겨진 우리 삶의 표정을 재치 있는 국악 콩트로 흥겨운 우리 가락을 감상하면서 청취자가 직접 참여하는 신바람 나는 시간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게 하며, 정체성과 긍지를 높이는 의미 있는 방송매체로서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로서는 국악의 대중화는 어렵다. 오히려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송매체에서 국악을 자주 들려주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악의 방송회수는 여전히 너무나 적소, 시청률은 낮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송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악의 명인과 명창들의 소리를 TV나 라디오에 많이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음악의 맥과 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 4. 전통음악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는 풍토 조성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은 시대적 사명이다. 1951년 국립국악원의 개원 이후 연주 활동이 이루어져 60년대 초에는 서울시립 국악 관현악단이 최초로 창단 되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는 물론 전국의 각 시·도에 시립이나 도립의 국악 관현악단이 창단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음악 활성화를 위해 도내 교육기관 대학의 국악과가 신설되어 전문성과 예술인이 창출되어 다양한 전통음악 공연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이나 학자, 학교, 음악교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국악인의 동참도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의 각 영역에서도 전통음악 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악교육이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전통음악 교육은 누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

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몫이며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노력을 한다면 전통음악 교육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음악 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악은 스승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므로 학교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교사들 간에 서로 모여서 국악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악을 감상하면서 이론 및 감상에 대해 분석해보고, 국악학습에 필요한 악기를 배우고, 효과적인 국악 교수법을 연구하고, 국악의 지역화 방안을 탐색하고, 국악수업을 공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국악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국악교육이 중요하다고 실감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교사들은 국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현행 고등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전통음악 교육의 문제점을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와 전통음악 교육에 대한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10학년용 음악교과서 8종에서 전통음악 분야 분석과 함께 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음악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8종의 음악 교과서에서 전통음악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출판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통음악이 8종 교과서에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나타났다.

제7차 음악과 교육활동 영역에서 가창, 감상, 기악, 창작 영역 중 가창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전통음악 분야에서는 8종 중 5종이 감상 영역의 비율이 높게, 3종은 가창 영역이 높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고, 특히 가창곡은 특정지역의 민요에 편중되어 있었다.

기악 영역에서는 단소, 장구, 사물놀이는 8종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나, 대금, 피리, 북, 소금은 일부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장구 악기 한 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장구 장단에서도 일부 한정된 장단에 치우쳐 있다.

감상 영역에서는 민요, 가곡, 판소리, 단가, 잡가, 등의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대취타, 산조, 연례악, 사물놀이에서 창작 국악곡까지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으나 8종 교과서마다 수록된 부분과 수록되어 있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시대에 걸쳐 문화권의 악곡형식을 이해하며 감상하도록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판사마다 다루고 있는 분야가 미흡하고 듣는 내용으로만 국한되었다.

창작 영역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락으로 지어 불러보기와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들며, 만든 곡을 악기로 연주하도록 구성하고 있는데 세광교과서에는 민요에 의한 가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고, 천재교육에서는 전통음악의 가락 짓기,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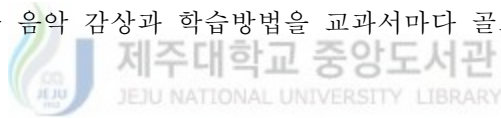
대음악에는 민요음계 가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고, 교학사, 두산, 대한교과서, 태성, 박영사에서 출판된 교과서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조사·비교·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요약 하면

첫째, 8종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에서 특정지방 민요에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지방별 민요를 고루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악 영역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장구 장단이 있는데 몇몇 장단에 편중되지 말고 다양한 장단을 고루 수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느 특정시대나 문화권, 국가의 악곡형식에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 형식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음악역사, 악기의 음질과 음색, 다양한 연주 형태 등을 통한 음악 감상과 학습방법을 교과서마다 골고루 영역별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창작활동의 내용면에서 단계적으로 전통가락 짓기와 주제 변주들이 전개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전통음악만의 특이한 음계나 선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야 하겠다.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단위 시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가창, 기악, 감상, 창작과 이해 영역을 골고루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학습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음악교사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전통음악 교육의 성패는 음악과 교육내용 중에서 전통음악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하느냐 하는 점과 음악교사들이 확실한 전문이론과 실기를 겸비하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다양화 시대에 주체성 있는 우리의 전통음악 문화는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전통음악 교육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하고 폭넓은 제재곡으로 음악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음악 교과서의 저자들은 전통음악 분야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적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악을 전공한 교사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효과적인 전통음악 교육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 내지 기능 습득을 위한 별도의 연수가 실시되어야겠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청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방송매체를 통한 전통음악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매스컴은 대중음악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상업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국악프로그램은 새벽 시간 아니면 심야 시간에 편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전통음악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방송시간대도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음악대학의 교육과정 중 국악과목의 필수 지정 및 국악실기 지도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현재 도내 교육대학기관에서는 아직도 전통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국악과가 신설되지 않아 전통음악 연주 활동이 빈약하다는 것도 이 지역 전통음악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국악실기 지도과정을 개설하여 국가의 보조로 국악실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음악교사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에게는 더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음악 예술을 살릴 수 있는 전문 음악인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정서 함양 및 음악활동의 국제화를 꾀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가나 교육관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음악을 구체적으로 창조적으로 키워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로 전통음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음악 교육의 틀이 잡혀 나가야 하며, 전통음악 교육은 우리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게 하며, 정체성과 긍지를 높이는 의미 있는 교육 활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교육부고시 1997-15호(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9음악-」, (주)대한교과서
- 국악교육협의회(1994), 「국악교육협의회보고서(1)」, 국악원 논문집. 제6집.
- 국립국악원(2002),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국립국악원국악연구실.
- 곽영호(1999), 「겨레의 얼 한국전통음악의 멋」, 도서출판사 광명당.
- 곽영호(1999), 「겨레의 얼 한국전통음악의 미」, 도서출판사 광명당.
- 곽영호(1999), 「겨레의 얼 한국전통음악의 맥」, 도서출판사 광명당.
- 김영운 외 8인(1988), 「국악의 향연」, 중앙일보사.
- 김우현(1995), 「전통음악의 원리와 교육」, 한국음악교육연구회.
- 김형주(1975), 「음악의 이해」, 문원출판사.
- 문교부(1989),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 서한범(1981), 「국악통론」, 태림출판사.
- 이강숙(1982), 「음악의 방법」, 민음사.
- 이성천(1991),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풍남.
- 이홍수(1991),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 유덕희(1981), 「음악교수법」, 정음사.
- 유덕희(1985), 「음악교육학개론」, 학문사.
- 임동권(1992), 「한국민요」, 일지사.
- 윤미용(2002), 「국악교육 체계화연구 기악·창작·감상」, 국립국악원국악연구실.
- 전인평(1989), 「국악작곡입문」, 현대음악출판사.
- 장사훈·한만영(1975), 「국악개론」, 한국국악학회.
- 장사훈(1984), 「한국악기대관」, 세광출판사.
- 장사훈(1986),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 최종민(2003), 「한국전통음악의 미학사상」, 집문당.

## <교과서>

- 고춘선 외 1명(2001), 「고등학교 음악」, 세광음악출판사.  
김성수 외 2명(2001), 「고등학교 음악」, (주) 대한교과서.  
백병동 외 4명(2001), 「고등학교 음악」, (주) 천재교육.  
서한범 외 3명(2001), 「고등학교 음악」, 도서출판 태성.  
이강울 외 3명(2001), 「고등학교 음악」, 도서 박영사.  
이홍수 외 3명(2001), 「고등학교 음악」, (주) 두산.  
윤경미 외 1명(2001), 「고등학교 음악」, 현대음악 출판사.  
정영택 외 1명(2001), 「고등학교 음악」, (주) 교학사.

## <논문>

- 고옥순(2003),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가창분야”,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지수(2002), “고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 지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덕(1996), “음악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요의 내용분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정(2001), “제7차 음악교육과정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장덕(1994), “중등음악교사의 효율적인 양성방안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미영(2001), “음악교육의 체계성에 따른 효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혜원(2000), “국악과의 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나영(1994), “교육대학 음악교육과 교육과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경자(1982),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과 그 원인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택(2000), “현행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음악의 실태”,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현(1986), “중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가창 교육의 실태 연구”, 석사학위 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영수(2000), “국악과의 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규현(1995), “중학교 국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선진(2003), “국악 가창 수업을 위한 반주부 제작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함선애(1992), “고등학교 전통음악 교과과정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인터넷사이트>



<http://www.co.kr/1fm>

<http://www.co.kr/1tv/sisa/kookak>

<http://www.co.kr/radio/1fm/kukak/notice/index.html>

<http://www.kbs.co.kr/1tv/sisa/kookak/vod/vod.html>

<http://www.gugakfm.co.kr>

<http://www.imbc.com/radio/minyo>

<http://www.imbc.com/broad/radio/fm4u>

<http://www.imbc.com/tv/ent/kukak/index.html>

<http://www.imbc.com/broad/radio/fm4u/koreamusic/index.html>

<Abstract>

## A Study for Expanding Traditional Korean Music Education

With a focus on High School Music Education

**Yun, Kyung-Ja**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Soon-Bang**

This paper aims to overview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sections in the 8 textbooks published unde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find out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for them, whi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traditional Korean music education in schools.

In the general music education, singing is considered to be such an important part that it takes the largest portion of music textbooks among the sub-fields such as appreciating,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composing, but while in the section of traditional Korean music education, singing takes the largest portion in only the 3 textbooks, appreciation of traditional music takes the largest in the 5 textbooks among the current 8 textbooks. In addition, the songs for singing part mostly come from the particular regions in Korea and only *Janggu* appears to be a target instrument among various instruments. This partial emphasis on certain fields should be taken out to provide students with diverse songs and musical instruments, which leads to students' various musical experienc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While the diverse musical forms for appreciation come from the overall ages, they are not fully introduced for students' understanding in most of 8 textbooks and visual image for them should be also introduced for better understanding. Moreover, even though the most important part of music education is the composition area, it is neglected

---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or omitted in the textbooks.

The same amount of the contents of textbook with less classes per week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an the ones in the 6th national curriculum brings teachers difficulties in handling all of them during classes.

Systemic organization and qualified music teachers who are experts in music theories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re the key factors in making traditional Korean music education effectively. This makes it possible to recreate traditional Korean music in the 21st century, the age of information, globalism and diversity. The following three suggestions will be very helpful to implement this task.

Firstly, the contents of music textbooks should be diverse. Textbook writers should put the stress on developing various teaching materials for efficient and effective traditional music education.

Secondly, music teachers should be supported to improve their teaching abilities by the local educational office or central government. Teacher training programme for traditional Korean music education is needed because there are few music teachers who have sufficient knowledge about traditional Korean music currently.

Thirdly, more traditional Korean music shows should be introduced on mass media. Most of the music shows on current TV or Radio programme mainly consist of popular music whereas the ones for traditional music is on the air in the early morning or midnight. In current situation, adolescents hardly have an opportunity to listen to traditional Korean music.

In conclusion, the education of traditional Korean music in secondary schools will raise students' awareness of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 and strengthen their pride as Koreans.